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99.86	↑ 코스닥	716.89
	(+13.77)		(+5.07)
↑ 금리 (미국 9년)	3.454	↓ 환율 (원·달러)	1235.30
	(+0.085)		(-6.00)

‘월급 올라도 지갑은 텅~’ 고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최저임금 2년간 6.6% 올랐지만
7%대 고물가에 체감임금 하락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2.2%
한 가구당 부채 1억2374만원
금리인상 여파 22만원씩 더 늘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이상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까지 감소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성장 둔화, 부채 리스크, 고물가 지속 등이 경제를 억누르는 3고(苦)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98.2로 하락했다.

◆치솟은 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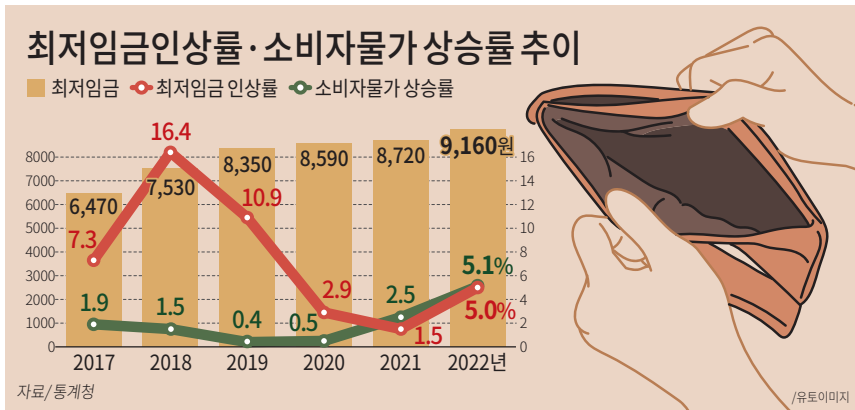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진 이유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다.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5.05% 상승해 2년간 6.6%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년간 물가가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상당수 국가들도 지난 2년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전망치를 64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분기, 73)와 코로나19 여파 (2020년 2분기, 66)보다 낮은 수준이다. /뉴시스



했다.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10% 넘게 떨어졌다.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 물가잡으려 금리인상, 소비여력 감소

다만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해 소비여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로 세계 35개 나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을 넘어 가계 빚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1

년간 경제 모든 주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도 현재의 가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가계부채) 총액은 1871조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08조원(54%),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49조원(40%), 판매신용은 114조원(6%)이다. 지난해 12월말 가구수는 2370만세대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율(63.8%)을 적용하면 한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2374만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전체이자자는 3조 3000억원, 한 가구당 가계부채는 21만8000원 증가한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진 데다 금융비용까지 늘면서 소비여력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6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대기업 공시부담 ‘완화’ 내부거래 기준액 100억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기준금액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100억원이었지만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기업들의 거래금액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해 100억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 기준이 일률 적용돼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인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자본금 5%를 초과하는 내부거래도 5억원 미만 소규모라면 공시 대상으로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공시 기준금액 현재의 2배로 늘려
자본 5% 초과, 5억 미만거래 제외
내부거래 25% 공시의무 해제 예상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기도 완화한다. 현행 12개 분기공시 항목 가운데 주식소유, 자금거래 현황 등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그간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 부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제2 중동붐’ 청신호…尹, 韓기업 UAE 수출길 물꼬

尹 대통령, 비즈니스포럼 참석 100여개 기업 경제사절단 동행 에너지 등 총 24건 MOU·계약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3일 차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는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둔 만큼, 이번 비즈니스포럼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의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관광 등 유망 협력 분야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UAE와의 수출계약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UAE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

대자동차 등 320여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한-UAE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최소 61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 분야별로는 ▲에너지(6건) ▲신산업(8건) ▲방산(3건) ▲스마트팜(3건) ▲기업지원(4건) 등 총 24건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한·UAE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경제 분야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였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UAE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중심의 정상외교가 실질적 성과를 창

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가 이번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실제 성과를 창출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추진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면서 300억달러(약 37조26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로, 대통령실이 예측한 수준보다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김성태 “내가 이재명을 왜 만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수
▲ 이광재 “국회 입법역량·예결산심사 기능 강화… 정치개혁 지원” /사진 뉴시스

▲ 국힘, 文대통령 책방 소식에 “한물 간 정치인의 작태 보여줘”
▲ 친윤 “관계개선 안되면 나경원 위험”… 비윤 “친윤 나경원 집단 린치”



▲ 이재명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초등학교’… 분권·자치 실현의 장” /사진 뉴시스
▲ 與·野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발… “초당적 협력 선거제 개혁”

올 홍콩항셍지수 10% 급등… 中, 리오프닝·경기부양 기대감

중국 당국, 빅테크 규제완화 조짐에
상하이지수 3.43%, 심천 4.63% ↑
중학개미, 소비재·태양광 기업 매수

중국 주요 지수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급등하고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이며, 리오프닝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6일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 1일~13일) 홍콩항셍지수(HSCEI)는 10.2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는 3.43%, 심천 종합지수는 4.63% 올랐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시진핑 3기 정권의 경기부양 기대감,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조짐 등이 꼽힌다. 지난 9일 중국

〈국내 투자자 중국 및 홍콩 증시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1월 1일~13일,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중국)	순매수 금액	순위	종목명(홍콩)	순매수 금액
1	귀주모태주	560만	1	텐센트 홀딩스	837만
2	창신신소재	1744만	2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	453만
3	토보장식재료	87만	3	메이투안	397만
4	웅기실리콘소재	71만	4	이해국제홀딩스	272만
5	화유코발트	70만	5	알리바바 건강 정보 기술	232만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공산당 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주석 귀수칭은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과 부양을 위해 빅테크 지원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년여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펼쳐왔다. 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개미(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소비재, 태양광, 이차전지,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을 순매수했다.
중국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중국 백주 1위 인지도를 가진 주류 제조 업체 귀주모태주다. 귀주모태주는 중국 내 대표 소비 관

련주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봉쇄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판매량을 지켜왔다.
이어 ▲이차전지 분리막 업체 창신신소재 ▲판재산업 주도기업인 토보장식재료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 웅기실리콘소재 ▲코발트 광석 제련업체 화유코발트 등이다.
홍콩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1위 IT기업인 텐센트 홀딩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빅테크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다.
이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 ▲중국음식 배달 기업 메이투안 ▲황귀용 조미료 공급업체 이해국제홀딩스(중국 황귀 체인점인 하이다라오 자회사) ▲중국 헬스케어 기업 알리바바 건강 정보 기술 등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중국 경제 반등 필요성이 부각될수록 정부 주도의 투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가 제시한 신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등 육성산업 중심의 대응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인프라 부동산 등 투자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이며, 3월 양회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발표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철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월 양회까지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부양책이 출시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부각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中, 車 수출 54% ↑… 독일 제치고 세계 2위

차이나 뉴스&리포트

작년 2700만대 생산, 311만대 수출
1위 日 11월 누적판매량 320만대

독일 지난해 수출량 261만대 그쳐
몇년안에 中, 세계 1위 타이틀 달 듯

중국이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현재 1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크게 좁히면서 몇 년 이내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311만대로 전년 대비 54.4%나 급증했다. 독일을 앞서면서 자동차수출국으로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총 생산규모는

2700만대로 수출 비중은 11.5%다.
자동차 산업 데이터 제공업체인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으로 320만대의 차량을 수출했다.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일본의 자동차 수출 규모는 382만대다. 2022년 연간 실적이 집계되면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26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해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량에 일본에 근접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자동차 수출국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모펀드 유니티의 카오와 파트너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강력한 수출 지원과 함께 중국 자동차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동차 제조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바꿔놨다”며 “특히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중국을 세계 자동차수출국 1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의 작년 전기자동차 출하량은 67만9000대로 120% 급증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오랜기간 폭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 BMW 등 외국 브랜드가 독식해왔지만 BYD와 길리 같은 국내 브랜드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오는 2030년에 550만대에 달할 수 있으며, 이 중 250만 대는 전기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00회 브뤼셀 모터쇼에서 방문객들이 BYD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신화·뉴스시스

UBS 폴공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확고한 시장 리더”라며 “경쟁자인 일본이나 한국보다 앞서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차량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BYD는 올 상반기 테슬라를 앞서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BYD는 지난 10월에는 인도에

서 전기차 SUV인 아토3를 출시했으며,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본격화했다.
보조금과 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국 자체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00개의 전기차업체가 있으며, 2022년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작인생략” 안산서부새마을금고 4차 공고문

안산서부새마을금고는 경영임찰방식으로 비영무용부동산투자·건물·을 매각한다.

-아 래-

1. 기본정보

자산구분	비영무용부동산 (토지·건물)	매각방법	경쟁입찰방식		
채권방식	현상대로 각 호수별로 매각	참가자격	자연인 및 법인등		
공통계약	가능	대리인(의정인) 입찰	가능(유일입찰제출)		
유관입찰	불가	담당부서문의	영양지원팀 031-492-5544		
지정계약	계약: 새마을금고 0350-09-004030(-1)	예금주: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입찰에부처는사항	호수별 개별 매각				
	① 서둘시 구로구 신도림동 412-3외 신도림(별마루)을 제1호 106호				
	② 서둘시 구로구 신도림동 412-3외 신도림(별마루)을 제1호 108호				

2. 입찰물건의 표시 및 최저입찰금액

호수	건물면적	토지면적	구조·용도	현황	최저입찰금액
제1호 106호	148.64㎡	2,521㎡(27.59㎡)	철근콘크리트조	양평중	1,640,250,000원
제1호 108호	112.38㎡	2,521㎡(20.86㎡)	근린생활시설	양평중	1,166,400,000원

3.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출기간: 2023.01.27.(금) 1200~1400

4. 입찰등록금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공동입찰참가신청서(당금고소정서부), 입찰서(당금고소정서부), 입찰유사(당금고소정서부), 입찰확인서(당금고소정서부), 청정제(이행사항서표준(안)당금고소정서부, 인당중(상업(안)당중(상)부, 사할인(상)계, 주민등록등본(상인)등기부등본(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상업(표준)표준신분증사본, 위임자(신분증사본), 위임장, 인당도장.

5. 매각(제출)일시: 2023.01.27.(금) 1400

6. 매각(제출)장소: 본 금고 회의실.

7. 매수신청보증금: 입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함.

8. 매수신청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매수자(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제1입찰일로부터 5일)에 10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은 안산서부새마을금고에 귀속됨.

9. 매각(당금)보증금 제외(한)의 납입기간 및 방법.

1) 매각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2) 매각보증금: 매각계약 체결시.

(매각보증금의 10%를 매각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함)

3) 잔금: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계약잔금금을 제외한 잔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현 시점(상대) 호수별로 입찰매각함.

2) 매수인(낙찰자)은 일·18(의)계약을 승계하여(인도 및 명도)책임은 매수인(낙찰자) 부담으로 함.

3) 안(제) 보증금은 매각(당금)에 포함하여(지급)하며(계약) 후 본(금)고 회계(계)준으로(상행)하여(결정)함.

4) 인(물)본 부(가)가(지)세는 매각(당금)에 포함하지(않고) 낙(찰) 후 본(금)고 회계(계)준으로(상행)하여(결정)함.

9) 그(외)의(사항)은 본(금)고 규정(을) 준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및 영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1. 17.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되나… 오늘 논의

중대본, 설 연휴 기간 조정여부에 관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지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어 설 연휴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상황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첫 자문위원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고위험 상황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1단계 전환 기준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가 제시됐다. 4개의 지표 중 2개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

의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 주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개를 이미 충족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3주간 6만5530명→5만9239명→4만1968명으로 매주 1만명 가까이 지속 감소 추세다. 중환자실 가동률 역시 지난해 8월 19일 이후 50%를 넘는 적이 없고, 주간 치명률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0.1%를 초과하지 않았다.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중국발 유행도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대, 양성률이 10%대로 안정적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1단계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 평가했다.
정재훈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은 “2주 전부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요인도 실현된 위험은 아니다”라며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시스

이후에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 “해외 요인이 없다면 저는 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음 단계로 내려가도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내 여건은 당장 만족이 됐다 하더라도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재계 총수, 다보스포럼 총출동… 부산엑스포 유치 힘 보탠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 등 참석
해외 주요인사들에 엑스포 지원 요청
현대차, 엑스포 홍보차량 58대 운영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 경제 환경 흐름을 분석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로 53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이날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재계 대표적인 총수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교류하며 경제 위기, 기후위기, 일자리, 인공지능(AI) 등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주제를 화두로 의견을 교환한다. 오는 18일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인텔, IBM, JP모건 CEO가 함께 하는 간담회가 대표적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다.

국내 기업 CEO 중에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에 선출됐다. 한국 기업인이 다보스포럼 산하 협의체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화학 산업 주요 현안을 검토한다.

또 국내 총수들은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다.

세계 여러 기업의 총수와 주요 경영진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만큼 정·재계 인사들에게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의 이점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대한상의 주최로 ‘한국의 밤’ 행사가 열리는 데, 기업 총수들은 이 자리에 한데 모여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동안 현지에서 부산엑스포 홍보 문구가 랩핑된 차량 58대를 운영한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모인 각국 주요 인사와 현지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

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엑스포 비전에 맞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18대, GV60 8대, 현대차 싼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5대 등 친환경차 45대를 투입한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에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장 입구에 부산엑스포 로고가 적용된 투명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도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부산엑스포 전담 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T’를 구성한 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등에서 유치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무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1월 열리는 다보스포럼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지난해에는 행사가 5월로 늦춰진 바 있다. 이번 포럼은 3년 만에 1월에 재개되는 대면 행사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제2 중동붐 열린다

SK, UAE 국부펀드와 기후변화 위기 협력

무바달라와 파트너십 구축 MOU
운영위·워킹그룹 등 협의체 구성

SK그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협력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국가적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경영과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SK는 15일(현지시간) UA

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을 대표해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성사될 수 있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민간 기관이 인증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이다.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은 물론,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기관도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앞으로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운영위원회와 워킹그룹 등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인증 방법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논의기로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기부, UAE 경제부와 中소 혁신 지원 ‘맞손’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육성
DMI와 韓 콘텐츠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손잡고 양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UAE가 추진하고 있는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 한국의 파트너 역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ntrepreneurial Nation 2.0은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력을 통

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새 수장 찾는 전경련… 쇠신 본격화

허창수 회장, 다음달 사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면적인 쇠신을 위해 새로운 회장을 찾는다. 젊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다음달 23일 정기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허창수 회장이 다음달 사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2011년 처음 회장에 올라 12년간 5차례 연임해왔다.

전경련은 허 회장 임기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오랫동안 재계를 대표하는 조직이었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주요 그룹사가 탈퇴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인 ‘전경련 패성’을 보여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여전히 예전만 한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허 회장도 이같은 상황에 ‘전면적인 쇠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회장을 계속 맡아왔지만, 더이상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전경련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손경식 경총 회장을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전경련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쇠신 노력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1939년생으로 재계에서도 고령이라는 점 역시 전경련 차기 회장으로는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대신 유력한 후보로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각각 1956년, 1953년생으로 재계 총수들 중에서는 ‘형님’뻘이면서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왼쪽)이 마스크를 수거하는 모습.

/코오롱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영상을 통해 임직원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2025를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차이가 크지 않아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전경련이 쇠신을 위해서는 우선 4대 그룹을 다시 회원사로 가입시키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 재계 총수들 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쇠신 의지도 강하다. 이웅열 회장은 이미 전경련 혁신위원장으로 발탁돼 쇠신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 회장은 2021년부터 전경련에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을 맡아왔으며,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은 지금 내부 쇠신은 물론이고 4대그룹의 전경련 가입이라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며 “혁신과 전경련 외연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중량감 있고 신망이 두터운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CES2023 전시장 입구.

올해 CES2023에서는 체험을 하는 관람객들이 눈에 자주 띄었다. 다수의 관람객들은 VR, AR 기기를 착용해 원하는 장소를 미리 방문해 보거나, 게임 속으로 들어가 아바타가 되 보기도 했다. 또 광활한 대 자연을 눈앞에서 보기도, TV 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실제 내 손에 떨어지기도 하는 등 올해 CES2023은 시각, 촉각, 청각 공감각 등 인간의 '감성'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였다. 기자도 CES2023에서 다양한 분야를 체험해봤다.

VR UAM로 부산여행, 테슬라로 우주 체험... 미래가 '성큼'

(가상현실 도심항공교통)

◆SK 부스존

“이제 부산으로 갈게요”

CES2023 센트럴홀 SK부스 존은 도심항공교통(UAM)구간에 인파가 몰렸다.

안내원은 “도심항공교통(UAM)은 수직 이착륙기능을 통해 도심 상공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UAM을 체험하기 위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VR 기기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한 뒤 뒷자리에 착석했다. VR기기를 착용하자 부산바다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후 기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UAM이 이륙했다. 기체가 흔들리면서 좌우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자 밸런스 어느정도유지되기 시작했다.

UAM은 부산역에서 벡스코를 거쳐 동백섬 버티포트까지 날라갔다. 중간 중간 미팅과 음악, 여행도중 필요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방송도 나왔다.

이렇게 약 3분 정도의 UAM을 체험하고 내려오니 살짝 어지러웠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SK관계자는 체험한 UAM에서 재생된 영상은 실제 부산 실사판이며, 지역 선정에 대해 2030부산 세계엑스포유치를 이유로 들었다.

◆테슬라 지하터널 '루프'

“당신은 즐기세요. 운전은 기사가 할 거예요. 우주로 들어가는 기분일거예요” CES2023이틀째 되는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테슬라 루프 탑승 존에서 만난 안내원 시안(Syan, 28)의 말이다.

루프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머스크가 CES기간 동안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LVCC 지하에 2.7km, 깊이 12m의 터널을 뚫어 테슬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지하터널'이다. 초창기 목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었지만 허가문제로 기사가 테슬라 차량을 운전해 이용객을 목적지에 내려준다. 올해는 루프를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막 일주일 전 운행 소식을 알렸다. 아울러 CES2023 참가 출입증이 있다면 Free(무료)다.

기자는 시간을 비교해보기 위해 현대

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모빌리티 기업들이 모여있는 웨스트홀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 센트럴홀까지 우선 걸어봤다.

약 1.7km의 거리로 빠른걸음으로 할 경우 약 9분, 보통 걸음으로 할 경우 약 13분 정도 소요됐다.

반대로 센트럴홀 지하로 내려가니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테슬라 루프 존이 있었다. 해당 존에서 안내원인 시안에게 내가 갈 목적지를 말하자 검색색 테슬라 모델을 가르키며 탑승하라고 했다. 웨이팅은 없었다. 줄이 별로 안길다는 말에 시안은 “순환이 빠르다”고 답했다. 이후 웨스트홀로 가는 두 명과 함께 탑승했다.

자율주행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기사가 운전하는 방식이었다.

기사는 세 명이 탑승하자 목적지를 더블 체크하고 운행을 시작했다. 곧바로 분홍, 연두색 등 형광 조명이 비추는 지하터널로 진입했다.

속도는 약 50km에서 60km정도됐다. 승차감이 좋아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느껴졌다. 기사는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에게 언론인이냐고 질문해서 그렇다고 했다. 이후 이윽고 테슬라 루프의 긴 스토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다음은 기사 피셜이다, 일론머스크는 모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터널도 파낸게 아니라 찍어 낸 것란다. 찍어낸 지하터널이 고리 모양을 닮았다해서 루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다

이 한 두문장 들었을 뿐인데 웨스트홀에 도착했다. 약 2분 정도 걸렸다.

같이 탄 동승자에게 소감에 대해 물어보자 “우주는 아니고 힙한 지하철길다”는 신박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안내원은 올해 CES2023에서는 리조트월드역과 리비에라역 까지 운행한다고 말했다. 총 길이는 4.8km다. 내가 이동한 거리는 약 2km가 되지 않는다.

다소 짧았던 주행거리와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웠지만 편리함, 안전함, 실효성인 측면에서 꽤나 만족했다. 여기에 테슬라 안내원, 기사와의 small talk에서 소소한 정보를 얻는것도 '꿀'이었다. 기자는 올해 CES2023에서 무려 6번이나 테슬라를 이용했다.



CES2023 SK 부스존에 설치되어 있는 UAM.

SK존에서 VR 도심항공교통 탑승 부산역에서 동백섬까지 날아가

CES기간 교통체증 완화 위해 2.7km 구간, 깊이 12m 터널 뚫어 “테슬라 루프, 힙한 지하철 길아” 구간 짧고 자율운행 아니라 아쉬워

“진짜같아” “아름답다” 환호성 연발 LG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 플렉서블사이니지 260장 이어붙여 밤하늘 사하라·세렝게티·빙하 등 대자연 속에 있는 듯 한 ‘몰입감’

새끼손가락 대면 냉장고문 ‘활짝’ 삼성전자 ‘비스포크 오토오픈도어’

◆LG전자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

“장관이다. 진짜같아. 사진찍자”

CES2023 센트럴홀에 들어서자마자 벽 한면을 가득 채운 대 자연의 장관이 기자의 시선을 압도했다.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들었다. 카메라를 아무리 뒤로 가서 촬영해도 한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다.

옆, 뒤 앞 수많은 관람객들도 ‘진짜같아’, ‘아름답다’는 등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며 사진을 찍었다.

LG전자 부스의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이었다.

매해 전시관 입구를 올레드 조형물로 설치해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LG전자가 이번에는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을 선보이며 또 한번 관람객들의 탄호성이 나왔다.

태양계와 별들의 궤적을 담은 밤하늘, 사하라 사막, 세렝게티 국립공원, 북극 빙하, 거대 파도로 유명한 나자레 해변 등이 마치 지평선처럼 초고화질의 화면에 펼쳐져 전시관이 아니라 실제 대자연 속에 있는 몰입감을 줬다. 천



형광 불빛이 나오는 지하통로를 테슬라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원만한 굴곡에서 나오는 빛이 오히려 눈의 피로감을 덜어줬다. 비록 어떤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도 관람객들과 함께했지만 그마저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기술 개발자 닉(23)은 LG전자는 매년 기대하게 된다며 연신 감탄했다.

LG 전자 전시관 내부에 들어서면 세계 첫 무선 OLED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M’에 또 한번 압도당한다.

LG전자는 전시관 입구 정면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앞뒤로 4장씩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조물 아래에 있는 물에 화면이 반사되며 깊이감을 선사한다. 분명 TV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실제 물방울로 바뀌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물방울이 연출되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됐는데 관람객들의 눈이 물방울을 따라 천천히 따라 내려가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도 펼쳐졌다.

◆삼성전자 체험존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오토오픈 도어도 체험했다.

새끼손가락을 대자 냉장고문이 쉽게 열렸다. 해당 센서는 양손에 무거운 식재료를 들고 있을때 유용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 기자가 양손 무겁게 식재료를 들을 일이 없다고 판단해 빠르게 지나쳤다. 하지만 물론 관람객들의 관심 끌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다. 꽤나 실용적인 아이템이라고 감탄하는 관람객도 있었다.

VR을 착용하고 게임체험도 했다. 내

가 선정한 캐릭터가 실감나게 보였다. 한참 게임 속 무대를 휘저으며 적을 무찌르고 있는데 스스로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해서 VR기기를 벗고 뒤를 보니 직원이 내가 잘 할 수 있게 몰래 조종을 하고 있었다. 물론 호의였겠지만 괜히 직원은 나를, 나는 캐릭터를, 현재3인칭이서로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르게 삼성전자부스 체험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 로봇, 가전제품, 자율주행,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전 세계 기업들의 기술을 체험해보니 기존 CES의 주 분야인 모빌리티, 가전을 넘어 카테고리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시회가 모호한 정체성·명제 탓에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기자는 몇 기업의 부스를 체험하고 돌아서 “그래서 이게 뭐라고?”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카테고리의 폭은 넓을 수 있어도 해당 전시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올해 CES2023이 해당 시장이 순조롭게 확장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본다. CES2023은 기업의 방향과 앞으로의 트렌드를 한번에 확인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CES2024에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즉각 알아볼 수 있는 체험이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해보고 있다.

양곡법 상정 ‘충돌’… “국회법 무시” vs “본회의 직회부”

〈輿〉

〈野〉

새해 첫 법사위 여야 대립으로 파행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개정안
국민의힘 “법사위 계류된 법안”
야당 “왜 지금와서 토론” 반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16일 ‘강 대 강’ 대치를 하다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했다고 주장해 결국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자리를 뜨는 파행을 맞은 것.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의해 직권상정됐는데,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상임위 의결 후 60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났는데, 법사위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것이다. 왜 지금 와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최초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법이다. 국회법 86조를 몇 번 읽어봐도 상임위 의결 시,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다음 본회의에 부의하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기초하는

국회법 절차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측 간사는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법사위가 여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직권상정을 반대했지만 오늘 심사해야 한다. 하반기 운영하면서 여야 합의한 법만 상정했는데, 이 건이 유일한 예외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직권상정을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안 자체가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 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관련해선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속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에 반발하고 김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 86조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제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이번 여야 충돌이 야기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나경원, 당 대표 출마 결단? 측근 “尹 대통령 순방 이후”

측근 통해 출마 의사 공개적 표출
尹 21일 귀국… 이달내 출마 전망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차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측근인 박 전 의원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나 전 대표 같은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할 때부터 출마 의지가 좀 광장하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그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니다, 국내 정치 걱정을 하시게 만든다. 그래서 귀국 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순방에 나섰고,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시기가 이르면 21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만 썬이다. 설 연휴 기간과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까지 고려하면 나 전 의원 출마 선언 시기가 1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의원은 “본인도 계속 고민해본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과 당원들이 어떤 가치를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출마 결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독립유공자, 무명용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나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세 분의 전직 대통령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말씀드렸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보수의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지금껏 흔들림 없이 정치를 해왔다”며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 투쟁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그렇게 우리는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2022년 3월 정권교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날 살 수도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나 전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이 UAE 순방 당시 40조원 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데 대해 “정권 교체와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큰 성과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건강히 소화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고려한 듯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행보에 지지까지 표한 썬이다. 이는 친윤(親尹석열)에 대한 공세와 다르게, 윤 대통령은 분리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위원장엔 이재명 대표

李 신년기자간담회 구상 구체화
당 내 3개 특별 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 비상설 특별 위원회 3개 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 3개 특위를 구성하기로했다고 밝혔다. 3개 기구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는다. 또한 당내 헌법개정특위는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경제안보센터 센터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겸임한다.

안 대변인은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데 있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헌법개정 특위는 윤 전 비대위원장이 당 내 중진으로 논의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경제안보센터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정책위의장이 겸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들을 개시할 것으로 본다. 각

각 기구 성격에 맞게 활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기본사회 위원회는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완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등 사회 전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당정, ‘초등 늘봄학교’ 3월부터 시범 운영

200곳 시범… 2025년 전국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200곳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추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 측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 문제 역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갖고 늘봄학교 및 유보통

합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가운데 4곳, 여기에 속한 초등학교 20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다.

당은 시범 사업에 필요한 ▲유형별 세분화(아침·저녁·틈새 돌봄)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는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범 학교로 선정된 200곳에 대해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모든 권한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춰 맞춤형 프로

그램으로 꾸릴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아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책임교육 분야인 유보 통합, 늘봄학교에 대해 “유보 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 늘봄학교는 초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과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영훈 기자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 新 회계제도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④ 한화생명

사업 선점은 선두 유지의 초석
끊임없는 연구개발·혁신 주문
피플라이프 품고 GA시장 재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여부 촉각

“금융, 건설 등 기존 주력사업의 성공이 단기 특수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달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미래사업 시장 선점에 무게를 둔 경영 기조를 발표했다. 이달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또한 용인시에 위치한 신입사원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과거적 혁신’을 강조했다.

여 대표는 “기술 진보와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업무 형태와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금융업계가 디지털 사업을 주요 해결과제로 뽑은 만큼 관련 사업 선점은 선두 유지의 초석이다. 한화생명은 생보업계 1~2위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혁신을 동반한 운영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 영업 채널 확장·IFRS17 대비 초점

한화생명은 올해 경영전략 회의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찾는 2023년(Make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New Ways Possible! New Start 2023)’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했다.

우선 영업 채널 확장 행보다. 지난 2일 한화생명의 판매자회사인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는 피플라이프 인수를 완료했다. 피플라이프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6위로 대형사에 속한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 등 대형 GA사 3곳을 소유하게 됐으며 설계사 조직 규모는 2만5000여명에 달하는 판매채널을 구축했다.

GA설계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지원 플랫폼 ‘오픈지트리’를 이용해 ‘청약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한다. 청약자동화를 통



한화생명의 버추얼 재무설계사인 ‘한나’의 이미지. /한화생명

해 청약업무의 90% 이상을 간소화 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내고 GA시장 재편에 무게를 실을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를 위기 극복의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수립한 해결과제에 판매채널 확장을 추가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보험업계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에도 대비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를 예고한 만큼 종신보험 등에 신규 가입자 확대와 보험료 인하 카드를 빼 들 가능성이 높다.

이달 한화생명은 특약 47종을 담은 ‘넘버원 재해보험2301’을 출시했다. 기존 손보사들이 제공하던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차박, 등산, 골프 등 야외 활동 보장부터 운전자를 위한 ‘교통사고부상지원특약’ 등을 담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올해 도입되는 신(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수익성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자본 변동성 축소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메타버스 활용한 디지털 전환

“우리가 준비 중인 항공우주, 그린에너지, 디지털금융 등 미래사업도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김 회장은 계열사를 향해 디지털금융 강화를 요구했다.

한화생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메타버스 가상연수원 ‘라이프플러스 타운’을 활용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FP)를 대상으로 영업교육을 시작으로 갤럭시코퍼레이션과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상인간 ‘한나’를 공개했다. ‘한’화생명의 ‘나’라는 뜻의 한나는 버추얼 FD로 사내 인플루언서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에서 사람을 만나는 만큼 해외 판매 채널 진출에도 유리하다. 또한 인간의 형태를 띤 사물이 보험 상품 설계와 안내를 도울 수 있어 단순 온라인 채널과 음성 상담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전리서치는 지난 2020년 100억달러(약 12조4200억원) 규모의 버추얼 휴먼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5275억8000만달러(약 655조2543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여부도 분수령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한화생명 또한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화생명 측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예고했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회의 세 시간을 남겨두고 연기했다. 이후 뚜렷한 윤곽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올해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계획안 수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생명은 과거 한 차례 이목을 끌었던 만큼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한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디지털 전환과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이 업계 최대 현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우리금융, 6개 그룹사 공동영업 시스템 오픈

손태승 회장 ‘고객서비스 강화’ 지시
‘WON 시너지’ 구축 통해 협업 확대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 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6개 그룹사와 함께 공동영업 시스템인 ‘WON 시너지’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부터 그룹 시너지 확대를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손태승 회장의 특별지시로

공동영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했다.

이번에 구축된 ‘WON 시너지’ 시스템은 그룹사 간 고객을 소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우리금융그룹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해 고객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소개 영업 관련해 불공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그룹사 직원 간 신속한 업무협의를 위한 소통 환경

도 구축했다. 증권사 및 보험사 등 그룹 포트폴리오 강화 가능성도 고려해 연동 개발이 용이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개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공동영업시스템 오픈으로 그룹사 협업 기반을 강화해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그룹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면제

신한은행이 금리인상에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유리 기자

국민銀 “외환거래도 인터넷으로 하세요”

비대면 플랫폼 ‘KB스타 FX’ 오픈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인 ‘KB 스타(Star) FX’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KB Star FX는 외환 거래와 결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정보 및 콘텐츠 제공 등 외환거래 고객을 위한 외환 원스톱(One-Stop) 플랫폼이다.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누구나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B Star FX는 ▲거래 ▲정보 ▲혜지 솔루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 영역에서는 실시간 외화시세를 바탕으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외화매매, 현·선물환 등의 거



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영역에서는 환율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통화별 분석결과를 제공해 변동성이 심한 외환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환시장 관련 이슈부터 외환시장 딜러와 이코노미스트가 제작한 시황 해설 영상, FX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강신숙, 어촌지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Sh수협은행장)

한국어촌어항공단 찾아 현장소통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Sh수협은행은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강 행장과 박 이사장, 정철균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 보전 및 이용, 관광 활성화 등을 역할을 수행한다. 수협은행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 중이다.



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왼쪽)과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양 기관은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강구 ▲어촌·어항·어장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활기찬 어촌을 위한 종합적 재생 방안 등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산 기자

>> 1면 ‘월급 올라도 지갑은…’서 계속

이창용 한은 총재

“경기침체 ‘보더라인’ 상반기 많이 어려울 것”

◆ 가계소비 줄어…경기침체 불가피

소비여력이 감소하면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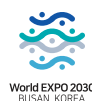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경기 침체

의 보더라인(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 생산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대표적인 대면소비지표다. 코로나 여파가 남아 있던 2021년 12월(-10.9%)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2개월 연속 감소다.

예금잔액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818조4366억원으로 전달 말 대비 8조8620억원 줄었다. 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 감소는 지난해 3월말 이후 9개월 만이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예금도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sk_inc_official



sk_inc_official 따르릉~따르릉~ 달콤하게 출발알~!
#sk #어스윳어스 #move



sk_inc_official



official 플로깅으로 지구에 달콤하게 줍줍 :)
윳어스 #green #플로깅

sk_inc_official 라벨은 떼고, 스윳
#sk #어스윳어스 #waste #올바른_분리수거

Earth with Us♥

우리에게도 스윳 지구에게도 쏘-스윳

지구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
Earth with Us(어스윳어스)

우리 모두의 실천이 계속되어
세상 스윳한 지구가 되는 그날까지
SK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스윳어스
Earth wi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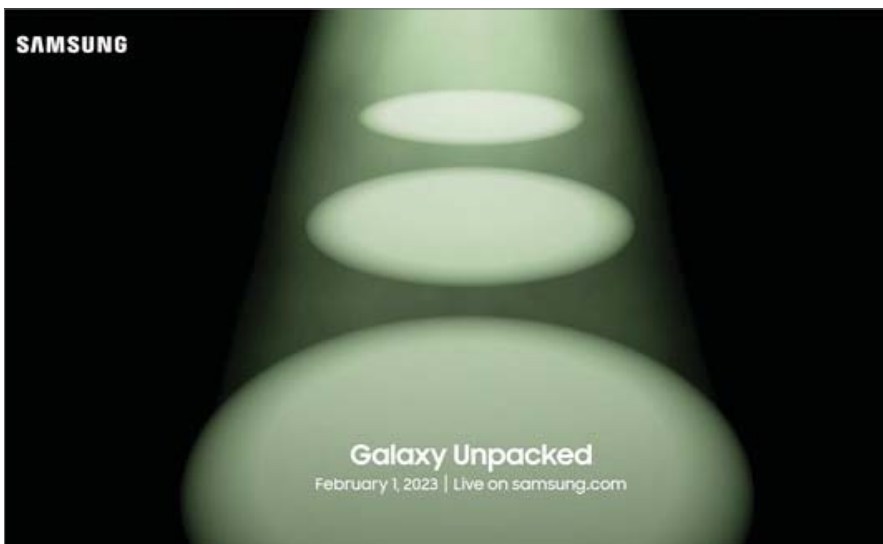
‘갤S23’ 100만원 넘을까… 역대급 성능에 판매가 인상설

삼성 신형 스마트폰 공개 임박
내달 중순 국내 정식출시 예측

역대급 카메라·배터리 기능에
원자재값·달러 강세 등 여파
전작대비 최대 20만원 오를 듯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폰 갤럭시 S23 출시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해당 시리즈의 출고가 상당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외적인 상황이 겹쳤고, 이러한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갤럭시 S22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3 시리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으로 2월 1일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본(6.1인치) ▲플러스(6.6인치) ▲울트라(6.8인치)다. 통상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이후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국내 정식 출시는 2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23 갤럭시 언팩 초대장

/삼성전자

다만, 각 모델의 확정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영향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외신과 틱스터들은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 갤럭시 S22보다 약 15만~20만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IT 전문 매체 샘모바일은 ▲일반형 119만9000원 ▲플러스 139만7000원 ▲울트라 159만9400원으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S 시리즈 일반형 모델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갤럭시 S21 일반형은 99만9900원 ▲갤럭시 S22 일반형은 99만9900원에 판매한 바 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카메라 기능의 향상과 배터리 향상 등 ‘역대급’으로 출시될 것으로 관측돼 소비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가격을 인상의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모바일 AP 가격 급등이다. 실제 삼성전

자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모바일 AP 평균 구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80% 올랐다. 틱스터들에 따르면 S23 시리즈 전체에 퀄컴의 ‘스냅드래곤8 2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용량은 일반과 플러스에서 각 3900밀리암페어시(mAh), 4700mAh로 전작대비 200mAh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S20부터 5000mAh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확대로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는 게 낫다는 반응과, 신작인 갤럭시 S23이 프리미엄 폰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 S22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65만원으로 늘리며 가격 조정에 나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2 울트라 256GB와 512GB 모델에 대해 요금제별로 각각 10만9000원~12만4000원, 3만2000원~5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최대 62만원, LG유플러스는 60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KT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갤럭시 S22 울트라 256GB와 512GB 모델에 대해 요금제별로 공시지원금을 3만~15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은 33만~65만 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공시지원금은 KT 11만원 요금제부터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신작이 나올 때 전작 시리즈의 스펙을 따져 필요에 따라 전작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항상 있었다”면서도 “경기 침체 환경과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등 새로운 스마트폰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그 수가 더 많아질 수는 있다”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로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갤럭시 S23 시리즈의 ‘성공’은 필수다.

한 소비자는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데 부품 원가절감 위주로 제품을 내놓지 않고 차라리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영범, 취임식 없이 전국 돌며 현장경영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지방 사업장 7곳 연달아 방문
현장 밀착경영 통해 성장 의지

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이 현장 소통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코오롱인더는 최근 김 사장이 지방 사업장을 연달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별도 취임식도 없이 전국 7개 사업장을 돌아봤다.

김 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경청했다.

김 사장은 현장 밀착형 경영 일환으로 지방 사업장을 찾았다. 이를 통해 현장경영을 내재화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과 공고한 소통 협력 체제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 ▲



김영범 코오롱 인더스트리 사장

품질 경쟁력 강화 ▲설비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현장 중심 성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마케팅(Marketing), 생산(Production),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연구개발(R&

D), 지원(Support) 등 각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MPQRS’를 강조했다. 각 사업장 생산설비 공정 진행 현황을 살피며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수준 높은 사고 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사적으로 ▲위험성 평가 수준 향상 ▲사업장 유해 요소 선제적 제거 ▲상생합심 기반으로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실천한다는 전략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영범 사장은 “올해는 근본적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기본에 충실한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제조·기술력·조직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임직원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듣고 현장에는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는 탈취 성능을 높인 LG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를 출시한다.

LG전자, 공기청정기 탈취성능 2.5배 강화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

LG전자 공기청정기가 탈취 성능을 더 높였다.

LG전자는 17일 2023년형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강력한 탈취 성능을 앞세웠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높은 탈취 기능을 원한다는 것을 파악한 결과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차세대 필터 ‘G

필터’를 개발했다. TÜV 라인란드와 시험 결과 암모니아와 초산, 아세트알데히드 등 3종 유해가스 누적 정화량이 종전 대비 2.5배나 많았다.

인공지능+기능으로 절전 효율도 높였다. 공기질이 ‘좋음’ 상태로 5분에서 10분간 지속되면 내부 팬을 끄고 디스플레이 밝기를 낮추는 등 최저 소비 전력으로 운전하는 원리다. /김재웅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등 유럽공략 본격 시동

벨기에 브뤼셀 유러피안 모터쇼 출격
올 뉴 렉스턴·티볼리 등 5종 전시

쌍용자동차가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쌍용차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리는 ‘2023 브뤼셀 유러피안 모터쇼’에 참가해 코란도 이모션, 올 뉴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티볼리 에어 등 5개 모델을 전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재 생산을 시작한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을 벨기에 시장에 선보이며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 없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최대 출력 140kW(190ps), 최대 토크 360Nm(36.7kg.m)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39 km (WLTP 유럽 기준)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유럽시장 등에서 꾸준히 제품력을 인정 받으며 수출 4만 5294대를 기록해 지난 2016년(5만 2290대)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미디어를 초청한 토

레스 글로벌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주요시장에서 토레스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해 유럽시장 등에서 꾸준히 제품력을 인정 받으며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브뤼셀 모터쇼를 통한 유럽시장 공략을 시작으로 기존 시장에 대한 판매 네트워크 재정비는 물론 신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 전략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지난해 판매 성장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건설기계3社, 구매대금 조기지급

2400억 규모 명절 앞두고 상생경영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개사가 협력사에 납품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에 나섰다.

현대제뉴인,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개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00억원 규모의 구매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 대상은 3사의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중견기업 820곳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협력사들은 1월말에 지급하던 대금을 18일로 앞당겨 지급하고, 현대제뉴인과 현대건설기계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품한 자재 대금을 1월 20일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협력사들은 최대 11일 빨리 납품대금을 받게 된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한화3社와 ‘배터리 동맹’ 맺고 美 ESS시장 공략

〈에너지저장시스템〉

한화큐셀, 美 안정적 배터리 확보
한화모멘텀과 제조설비 관련 협력
한화에어로와 특수목적용 개발 등
배터리 분야 전방위적 협력 추진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이 미래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6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계열부문, (주)한화 모멘텀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3사는 ESS 사업 등 배터리 관련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美 ESS시장에 안정적인 배터리 수요처 확보…중장기 성장 노력

먼저 양측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ESS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은 미국 ESS 전용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배터리 뿐 아니라 ESS에 포함



16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배터리분야 전방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문승학 전기추진체계사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 신영준 CTO, 한화큐셀 이재규 GES사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 장승세 ESS사업부장, 한화모멘텀 류양식 이차전지사업부장, LG에너지솔루션 신기창 전극기술센터장.

/LG에너지솔루션

되는 공조시스템, 전장부품 등 통합 시스템 솔루션의 기술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으로 한화큐셀은 안정적인 미국 전력 시장용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전력망의 안정화와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ESS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품 수요가 중요하다. 특히 미국 전력망 ESS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로 연간기준 2021년 9GWh에서 2031년 95GWh로 9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95GWh는 국내 기준 약 4000만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 충전 규모다.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

양광 모듈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은 이번 사업협력으로 안정적인 배터리 물량확보와 경쟁력 있는 제품 조달을 통해 태양광과 더불어 ESS 사업 개발 및 EPC 분야에서도 톱 클래스 기업으로 발돋움 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추가 확보하며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회사들은 “이로써 자동차전지, 소형전지부터 ESS 사업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3각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발전사인 비스트라(Vistra)에 단일 전력망

사이트 기준 세계 최대인 1.2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지난해에는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Vertech)’를 신설해 ESS 시스템 통합 분야에도 진출한 바 있다.

◆배터리 제조설비 협업·특수 목적 배터리 개발 공동 진행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모멘텀도 협력에 나선다. 한화모멘텀은 2차전지, 태양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 등의 다양한 고객사에 공정장비를 제공하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배터리 제조설비 관련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GM(일티엄1·2·3공장), 스텔란티스, 혼다 등 주

요 완성차 업체와 함께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한국 오창, 폴란드, 미시간 등 기존 단독 공장들의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가 예정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신성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각 사의 배터리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및 ESS 사업 관련 고객가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고객에게 친환경 에너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ESS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구축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을 결정했다”며 “국내외에서 배터리 제조설비와 특수 목적용 배터리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T 인사 잠정연기… 구현모 대표 연임 변수

국민연금, 구 대표 연임 반대 행사
KT클라우드 투자 유치도 ‘올스톱’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단행할 예정이었던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미루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은 설 연휴 또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KT클라우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최근 전무급 이상 임원들과 만나 당초 이달로 잡혀 있었던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한 임원은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당분간은 현재 조직과 임원진으로 KT를 이끌어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종 이후까지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계열



사들이 있어서 주종 이후까지 연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부장급 이사 직원 및 상무보 승진 인사까지는 이미 단행했다. 상무 이상 임원인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연기에는 구 대표의 연임 문제가 깊숙히 관련돼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구 대표를 차기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확정했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바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여권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구 대표의 연임이 변수로 떠올랐다.

또 국민연금은 당초 KT의 지분율이 9.99%까지 낮아졌지만 지난 13일 지분율이 10.03%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분을 늘린 만큼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구 대표 연임 건에 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클라우드 투자 유치도 올스톱 된

상태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T클라우드 투자 유치에 대한 본 입찰 진행 결과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국내 사모펀드 IMM 크레딧솔루션(ICS), VIG알터너티브크레딧(VAC), 미래에셋자산운용 PE 부문 등이 참여했다. 현재 IMMICR 등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적격상장, 보장수익률 제시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때 IMM IC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KKR은 투자조건으로 임원 선임권을 요구한 사항이어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KT클라우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주요 고객이 국내 주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MM ICS는 토종 PEF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유치 건의 최종 결과도 언제 나올 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KT클라우드의 빅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폭스바겐, 지난해 전기차 57만여대 판매… 전년비 26% ↑

전체 인도량의 6.9% 차지
유럽 전기차 시장 선두 유지

폭스바겐그룹이 지난해 전동화 출고 비중을 크게 늘렸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전기차 57만2100대를 인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로 1.8% 포인트나 늘었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4위로,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전년보다 68% 더 많은 차량을 인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

판매 확대 위원회 멤버인 힐데가르트

보트만은 “우리 브랜드들은 전동화로의 변화가 브랜드 전반에 걸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역풍을 뚫고 전체 전기차 점유율 목표치인 7~8%에 도달”했다며 “고객이 우리의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재웅 기자 juk@

아우디, 17mm 더 길어진 콤팩트 SUV 출시

더 뉴 아우디 Q2 35 TDI 라인업
연비 16.7km/L, 4020만원 부터

아우디 콤팩트 SUV가 국내에 들어온다.

아우디코리아는 19일 더 뉴 아우디 Q2 35 TDI 라인업 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우디 Q2는 최첨단 기술에 실용성을 겸비한 콤팩트 SUV다. 이번에는 더 뉴 아우디 Q2 35 TDI와 프리미엄 2종으로 출시된다. 부분변경 모델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전 모델보다 17mm 더 길어졌다.

파워트레인은 2.0L 디젤 직분사터보차저 엔진에 7단 변속기를 조합한다. 공인복합연비는 16.7km/L로 1등급을 달성했다.



더 뉴 아우디 Q2 35 TDI

실내 공간은 5인승, 트렁크 용량은 405L다. 등받이를 접으면 1050L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프리미엄 모델에는 스포츠 시트도 적용한다.

가격은 트림별로 4020만2000원, 4363만8000원이다. 출시를 기념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승 기회와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재웅 기자 juk@

KT, 가족 니즈 케어 ‘디즈니+’ 혜택 강화

‘가족 만족 프로젝트’ 시행

KT는 가족 만족 프로젝트를 시행해 맞춤 혜택으로 모든 가족의 니즈를 섬세하게 케어한다.

KT는 가족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 만족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가족 만족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즈니+ 제휴 혜택을 강화한다. 지니 TV와 최신형 셋톱박스 ‘지니 TV 셋톱박스 A’나 ‘지니 TV 셋톱박스 3’를 이용하는 고객은 미디어포털로 디즈니+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지니 TV 최신형 셋톱박스의 리모컨에는 디즈니+ 핫키가 적용된다.

IPTV 요금과 디즈니+ 이용료가 결합된 지니 TV 디즈니+ 초이스 요금제(월 2만5300원), 또 지니 TV 디즈니+월정액 서비스(월 9900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KT는 지니 TV에 디즈니+를 론칭한 기념으로 3월 31일까지 지니 TV 초이스 요금제와 최신형 셋톱박스로 신규 가입 또는 변경하는 고객에게 디즈니+를 2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올 들어 은행株 20% 반등… 배당 확대 등에 주가 ‘휘파람’

KRX은행지수 상승세 가팔라
신한지주 24.57% 큰 폭 상승
주주환원 정책에 기대감 커져

새해 들어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금융지주 종목이 연초 대비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 등의 확산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 지수는 올해 첫 개장일인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21.36% 오르면서 735.57에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에만 전 거래일 대비 35.53(5.08%) 올랐다. 또한 이같은 상승률은 한국거래소(KRX) 주가지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대표 상장 종목 100개를 모은 'KRX100'이 8.8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상승률을



16일 서울 시내 은행 ATM기의 모습. /뉴시스

기록했다.

KRX은행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 주가 대부분이 크게 상승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신한지주는 이날까

만 24.43% 올랐다. 뒤 이어 ▲KB금융 6만원(+23.71%) ▲하나금융지주 5만 2600원(+25.09%) ▲카카오뱅크 2만 9450원(+21.19%) ▲우리금융지주 1만 3300원(+15.15%) 등 높은 상승률을 기

록했다.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은행주들이 최근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지주의 경우 지난 2일 경영포럼을 통해 자본비율 12% 초과분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한지주는 분기 현금 배당 정례화, 자사주 소각 병행 등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나서면서 나머지 금융그룹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 종목에 대해 “높은 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했다”며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점진적 행보는 국내 은행주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비율과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국내 금융지주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도 가능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7개 은행지주에 공개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 상장 은행이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며 주주환원 도입을 지적한 바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글로벌 규제 수준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근거가 없이 주주환원책의 자유도가 제한된 것은 관습에 가깝다”며 “최근 대형 일본 은행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정책을 발표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은행지주에 주주환원책을 확대 요구하는 등 선진적인 자본정책을 제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깡통주택’ 우려에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지난달 강제경매건 두 달 새 27% ↑
법원경매 시장 침체… 낙찰가율 뚝
낙찰가격 하락시 보증금 줄어들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법원경매 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유찰로 낙찰가격이 떨어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줄어든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5897건으로,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5186건) 대비 13.7%(71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10월(4882건) 대비 26.9%(1317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

나.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22.0%(336억원) 늘었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했지만, 현재 법원경매 시장이 극심

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 경매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경매 입찰 물건 중 낙찰된 물건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과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평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0%로 지난 2012년 8월(74.6%)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6.5%로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AI 반도체 핵심 NPU… 지금 투자 적기”

 **株라쿨라의 종목**

오픈엠티테크놀로지

NPU 시장 개화기 진입 시점
리서치알음, 주가 전망 ‘긍정’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연구원은 ‘오픈엠티테크놀로지’에 대해 “아이언맨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가 현실화되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가 반드시 필요하며 오픈엠티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이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엠티테크놀로지는 AI 기술을 엠티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AI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IP)’ 전문 기업이다.

엠티 환경이란 데이터를 서버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스마트

폰, 차량, 로봇 등 엠티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엠티는 NPU와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다루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최성환 연구원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은 시스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래픽 처리장치(CPU) ▲주문형 반도체(ASIC) ▲NPU로 발전되는 흐름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GPU 수요가 늘면서 엔비디아가 고성장했고, 최근 그 자리를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이 ASIC 자체 개발로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엠티 디바이스와 공존이 가능한 NPU 시장의 개화기 진입으로 오픈엠티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오픈엠티는 매출액 16억원, 영업적자 63억원을 기록했다. 주

요 매출 계획이었던 라이선스 계약이 지연되면서다. 단, 지난해 4분기부터는 라이선스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현재는 AI 시장이 개화하는 시점으로 당장의 수익 체크보다는 급격한 매출성장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리서치알음은 오픈엠티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만 2000원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최근 오픈엠티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이라 생각한다”며 “챗GPT(Chat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테마는 이제 시작 단계로 파악되며, 앞으로 여러 엠티 디바이스에 동사의 IP, NPU, 칩셋 솔루션이 적용되면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KB자산운용 中 지수 추종 ETF 수익률 ‘쑥’

3개월 수익률 28.57%로 ‘1위’

KB자산운용은 MSCI 차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중국MSCIChina ETF’가 3개월 수익률 28.57%로 국내 상장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1위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해제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중국 관련 상품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81개의 중국 관련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2.26%다.

‘KBSTAR 중국MSCIChinaETF’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dex)에서 발표하는 중국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중국본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상장된 중국 신경제 관련기업에 투자한다.

구성종목을 살펴보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텐센트(10.82%), 알리바바(7.81%)와 상해거래소에 상장된 평안보험, 미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핀두오두오, 니오ADR 등이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 본부 본부장은 “최근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돼 글로벌 증시 대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시장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테마에 단기간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지수형 ETF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유한양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 필수 상비약
효과빠른 감기약

래피콜®



👉 종합감기약 콜드



👉 종합감기약 에이



👉 코감기약 노즈



👉 목감기약 코프

광고심의필 : 2023-1655-0053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실 :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애플 ‘디스플레이 독립설’ 솔솔… 위탁 생산 가능성에 무게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피해 불가피
마이크로 LED 직접 양산여부 관심
선불리 양산에 나서기 어려운 분야

애플이 디스플레이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산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애플이 새로운 협력사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디스플레이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내년 말 출시할 애플 워치 울트라에 이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제품으로 자체 생산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연달아 보도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T159’라는 프로젝트가 결실을 이뤘다는 것.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 LED를 양산하는 내용으로, 애플은 2014년 스타트업 엑스큐를 인수한 후 꾸준히 연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 LED는 OLED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자체 발광 소자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OLED보다 훨씬 휘도가 높고 번인 현상도 없



애플워치4.

/애플

다.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중시해왔던 만큼, 마이크로 LED 도입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스마트폰 초기 고밀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레티나’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요소로 사용해왔다. 최근 필수가 된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 기술 LTPO도 애플의 특허 중 하나다.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내재화한다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중 30% 이상을 애플에 의존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애플 비중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주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TV.

/삼성전자

가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직접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다. 마이크로 LED는 이미 일부 업체에서 양산되고 있지만, 비용이 높아 제대로 상용화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픽셀을 붙이는 ‘전사’ 작업이 아직 고도화하지 않아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알려져있다. 연구용 외에는 그렇다할 디스플레이 펩도 갖고있지 않은 애플이 선불리 양산에 나서기는 어려운 분야라는 얘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양산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생산성

이 높은 업체에 위탁 생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BOE가 새로운 공급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BOE는 애플에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근 마이크로 LED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최대 협력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OE가 아직 기술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 OLED 부문에서도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더 어려운 기술인 마이크로 LED로 높은 품질을 요구하

는 애플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해외 전문 매체들은 LG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 LED를 공급할 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다시 ‘공급망 흔들기’를 시작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협력사를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애플은 일찌감치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도 TSMC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바 있다. 부품에 불과했던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모바일에서는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육성이 좌절된 대신,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 이미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2~3년 내로 따라잡힌 것으로 알려져있다. 디스플레이가 최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서 다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기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김재훈 기자 juk@metroseoul.co.kr

‘선택과 집중’ 롯데케미칼, 비핵심 사업 정리 택시시장의 진화… ‘프리미엄’으로 차별화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
파키스탄 자회사 1924억에 매각

롯데케미칼이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비핵심 해외 사업을 매각한다.

파키스탄 소재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고순도테레프탈산) 생산 판매 자회사인 LCPL(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매각을 위한 이사회를 실시해, 보유지분 75.01% 전량을 파키스탄 화학회사인 럭키코어 인더스트리(Lucky Core Industries)에 약 1924억원에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금번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석유화학 제품인 PE, PP, PET 등의 고부가화를 추진하고 스페셜티 사업

확대 및 친환경 소재 사업군 진출 등에 사용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사업 경쟁력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울산공장 PTA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전환을 통해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고순도 이소프탈산)를 생산해 왔으며, 금번 파키스탄 PTA 자회사 매각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PIA는 PET, 도료, 불포화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롯데케미칼의 PIA 연간 생산규모는 52만톤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실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년 매출 50조원 계획 중,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사업에서만 전체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한바 있다.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이번 해외 자회사 매각은 비전 2030 전략 방향에 맞춘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부가 제품군 확대에 회사의 경쟁력 확대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에 매각되는 LCPL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2009년 약 147억원에 인수한 회사로, 글로벌 경기 불만 등의 어려움에도 2021년 매출 4713억원, 영업이익 488억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고부가 스페셜티 확대라는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프리미엄 차량 라인업 확대

프리미엄 택시가 국내 택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급 택시 시장은 청결한 내부와 친절한 드라이버를 넘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엄 리무진 컨버전 브랜드인 케이지모터스는 노블클라세 L4를 카카오택시 블랙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블클라세 L4는 4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VIP 의전에 특화된 실내 공간을 갖췄다.

노블클라세 L4는 운전석과 2열 VIP석을 구분해주는 커튼 파티션, 뉴스와 날씨, 증권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터 파티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파수비로 VIP 시트 등을 적용했다. 고요한 모빌리티, 따뜻한 이동 서

비스를 제공하는 코엑터스는 독특하면서도 클래식한 외관과 함께 영국 런던의 명물 택시로 유명한 블랙캡 차량을 운영 중이다. 특히 슬라이드 레일이 기본 장착돼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교통약자 등 모두 구분 없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다. 코엑터스는 블랙캡 외에도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로 관심을 끈 ‘고요한 M’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특수 목적형 이동 경험 AI 안내원’ 서비스를 개발해 공개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특별한 이동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고급 택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고급 택시 시장은 새로운 프리미엄 차량 라인업 확대로 고급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시아나항공, 개조화물기 여객기로 복원

국제선 수요 회복세에 리오프닝 대비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기간 화물기로 개조한 항공기 7대를 모두 다시 여객기로 되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을 마지막으로 남은 개조 화물기인 A330 항공기에 이코노미 좌석 260석을 장착, 여객기로 원상 복원하는 개조 작업을 마쳤다. 최근 국제선 수요 회복세에 따라 기존에 화물기로 개조한 A350과 A330 항공기를 모두 여객기로 복구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장기화로 줄어든 여객 수요 대비 늘어난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A350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편당 23톤의 화물 탑재가 가능한 화물기로 탈바꿈 시켰다.

이후 글로벌 항공 화물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A350 4대, A330 3대 총 7대의 여객기를 화물 전용으로 활용해 개조한 대당 500회 이상 운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첫 화물기 개조 이후 전체 7만톤의 화물을 수송해 약 3700억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리오프닝에 대비해 개조화물기를 여객기로 다시 복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특히 화물 운송 수요가 높은 미주 노선에 개조 화물기를 적극 투입해 추가 매출 약 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IT·전자기기 부품 ▲개인보호장비 등의 탑재 물량을 늘려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5%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허정윤 기자

르노코리아, 협력사 대금 170억 조기 지급

예정일 보다 최대 7일 앞서

르노코리아는 설을 앞두고 중소부품 협력사에 물품 대금 17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중 중소기업 81곳을 대상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선 18일 대금을 지급한다.

르노코리아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르노코리아가 명절 전 조기 지급한 물

품 대금 규모는 1650억원에 달한다.

르노코리아는 또 최근 협력사의 수출 지원 호소문 발표와 관련, 타계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진 르노코리아 구매본부장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력업체가 최근 자동차 전용선박 확보난과 높아진 수출 물류비 등으로 올해 실적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현실적인 타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韓,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 다진다

정부 “IPEF 연내 타결 이뤄낼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
“내달 2차 협상서 큰 역할 할 것
올해 EPA 10개 이상 체결 목표”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내 타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PEF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데 우리가 통상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IPEF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뛰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이 1차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고 오는 2월 2차 협상에서 상당한 구조(규범 등)가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 진행중인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의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IPEF 1차 협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해 분야별 규범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경제동반자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20개를 체결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더 할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이 다변화한 공급망 전략을 갖고 산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결국 전 세계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공백이 있던 지역에 최대한 통상 역량을 강화해 통상 중추국가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FTA를 많이 체결한 곳,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기도 하고 EPA도 어려운 국가는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시장개방을 빼고 나서 실

질적 협력 관계를 늘리는 작업도 한다”며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세계 플랫폼을 만들어 아시아 메이저 국가들이 국내에 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와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조금 자제하려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영토를 넓혀 좋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경제국 침탈을 당한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FTA로 무역 흑자를 늘렸지만 상대국은 수탈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통상부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에서 교역과 생산 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나 경쟁력 비중이 낮은 국가가 없다”며 “과도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이 환율의 평가절하보다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어렵지만 1분기에 상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기술이전 中 企 ‘기술거래 사업’ 지원

40개사 선정… 내달 16일까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 중소기업 40개사를 발굴해 기술거래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총 3차에 걸친 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심



기보 본점 전경.

층평가를 통해 40개 기업을 선정, 이 전기술 사업화가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과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지식재산권)인수보증 연계와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 최대 1억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통합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이전기술의 상용화에 발생하는 간극 해소와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내부.

/울산시

울산, 제조·디자인 ‘시너지’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개소

5년동안 10억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
디자인 상담·홍보, 무료로 제품촬영
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16일 울산대학교 공장형실험동에서 서정욱 행정부시장,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재석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윤상흥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산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서울센터 구축 이후 7번째 설치한 시설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중소 제조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지역 제조기업을 위한 디자인상담과 수요맞춤개발, 홍보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무료로 제품촬영,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 내 공장형실험동(666.05㎡(200평))에 위치한 울산센터는 색상·소재·마감을 뜻하는 시엠에프(CMF - Color, Material, Finishing) 표본을 전시한 자료관, 전문 사진·영상 촬영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98년 항공기 모형실험, 홍수 현상이나 댐 및 항만의 모형실험 등을 위해 구축한 공장형실험동을 제조기업 혁신을 위한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로 탈바꿈시켜 의미가 더욱 깊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지역제조기업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산업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매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예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가루쌀’ 활용 신제품 개발 식품업체 지원

농식품부, 내달 3일까지 공모

정부가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참여할 식품업체를 모집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건식제분이 가능해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정부는 가루쌀을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39개소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추후 200개소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생산된 가루쌀 전량은 공공비축미로 정부가 사들인다.

이번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



가루쌀로 만든 블루베리 쌀쉬폰.

/농식품부

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쌀가루나 밀가루 사용실적이 연평균 100톤 이상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는다. 업체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3억2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목표, 밀가루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대폭 정비… 354억 투입

부산항 등 8개 항만 시설 정비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등 설치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4년까지 354억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의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록 통보했다.

국가관리 24개항의 경우 올해부터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강화한 안전기준이 적용된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조명시설,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한남노·난마돌 태풍 피해가 있었

던 부산항 등 8개 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2024년에는 군산항 등 나머지 16개항에 204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재정·미충원 ‘각자도생’ 하라는 것”… 교육개혁 비판 쇄도

학령인구 감소… 대학 위기 본격화

수시모집 경쟁률 6대1 미만 대학 85%가 ‘비수도권’ 사실상 ‘미달’

교육개혁, 지방대 살리기와 상충 “대학위기 방관, 몰락까지 갈수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각자도생’식의 개혁을 추진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정과제임에도 수도권대학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3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중 85%가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수시는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지역별 격차는 2021학년도 수도권대 12.91대1·지방대 5.67대1, 2022학년도 수도권대 13.95대1·지방대 6.04대1, 2023학년도 수도권대 14.33대1·지방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3 교육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5.72대1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경쟁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의 관리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완화, 자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평가 폐지, 4대 요건 규제완화를 시사하면서 과감한 교육 개혁을 타이틀로 세웠지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 권한 자자체 이양 역시 지역별 간극을 벌리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대학에게 재정 문제와 미충원을 스스로 해결하라

는 각자도생 주문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학 위기 방관, 심지어는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과제를 ‘지방대학 시대’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조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 구조를 통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관리 방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대학의 첨단학과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살리기 정

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교육계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대학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별 대학 단위의 관리가 아닌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의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에서부터 주목된다. 앞서 김영삼정부 시기 대학설립자율화를 표방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체제가 더해지면서 대학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정부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초·중·고 학생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서울시교육청, 총 216명 시범사업 위센터 전문상담사가 4~6회 상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부터 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대면상담을 주저해 심리정서 위기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상담 진행은 야타브엔터가 개발한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 ‘메타포레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뤄진다.

전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참가자 모집을 안내한 결과,

60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큰 호응을 보여 왔다. 이 중, 사전 절차를 걸쳐 선정된 21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24개 직영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가 겨울방학 동안 4~6회기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은 아바타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실시간 표정인식(Emotion Recognition)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표정을 이해하는 아바타를 구현함으로써 공간 제약과 VR 장비 없이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채팅 상담보다는 유대감 및 애착 형성에 용이하고 화상상담보다 높은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돼 상담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3년 말 운영 예정인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에 비대면 상담 및 블렌디드 상담 안착을 위해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기학생을 다각도로 밀착 지원하고, 학생·학부모 수요자의 상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공간을 적극활용함으로써, 상담이 더 많이 활성화 돼 서울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 앞둔 어린이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5만4622명 ‘소폭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새학기에 앞서 서울 초등학교들이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올해 최종 입학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564개교(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했다.

12일 집계 기준으로 취학대상자 6만 6324명 중 취학통지자는 총 6만1554명이었으며, 그 중 5만3704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추가 입학 희망자 918명을 포함해 최종입학예정자는 총 5만4622명으로 예비소집 참석자 대비 최종입학 예정자는 87.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부산 학생들 경주엑스포대공원 이용 협조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시설 콘텐츠 훌륭… 학생에 도움”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지역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장으로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16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따르면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13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체험 관람시설을 둘러보고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교육감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가진 체험 및 공연·관람시설의 콘텐츠가 훌륭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부산지역 학생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지난 13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접견실에서 류희림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왼쪽)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부산지역 학생들이 경주엑스포대공원 이용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맺자”고 제안했다. 하 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교육부, 오늘 서강대에서 2028대입개편 토론회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3차 2028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7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지난해 10월 24일 진행된 제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와 효과’를, 11월 29일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수시 전형의 운영 현황 및 평가’를 다뤘다.

이날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 선정

서울시교육청, 보성학원 등 45곳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으로 보성학원 등 학교법인 7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관내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위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우수 사학을 지원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

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관으로 2021년에 학교 35교, 법인 9개를 선정했고, 2022년 학교 40교, 법인 6개를 선정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38교(최우수 9교, 우수 29교)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신하은 기자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디지털 세계 연결
사고 Zero, AI 자율안전도로

레이더 교통 돌발·차량검지기
조달 우수제품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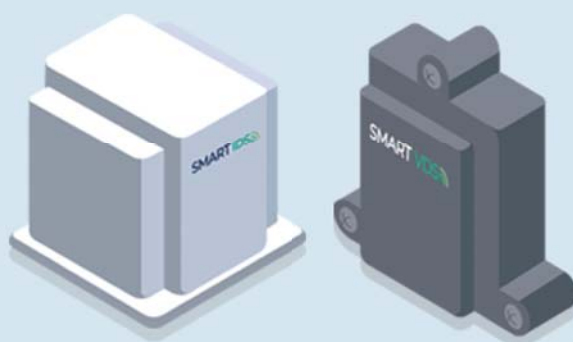
도로에 Digital을 입히다

MESIM Data Fabric suite
MESIM AI Platform | Integration(ESB, APIG) | DataHUB

“자율주행·C-ITS·ITS·빅데이터·스마트시티, 고속도로·터널·교량·국도”

SMART IDS

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교통돌발상황레이더검지시스템



SMART VDS

실시간으로 정확한 현장 교통정보 수집
시교통차량속도레이더검지시스템



보행자



정지차



사고차



갓길정차



역주행차



정체



교통량



차량속도



점유율

TRAFFIC DIGITAL TWIN

AI·디지털트윈 기반 각종 도로 인프라
통합적 교통 모니터링
교통디지털트윈플랫폼



개별 차량
데이터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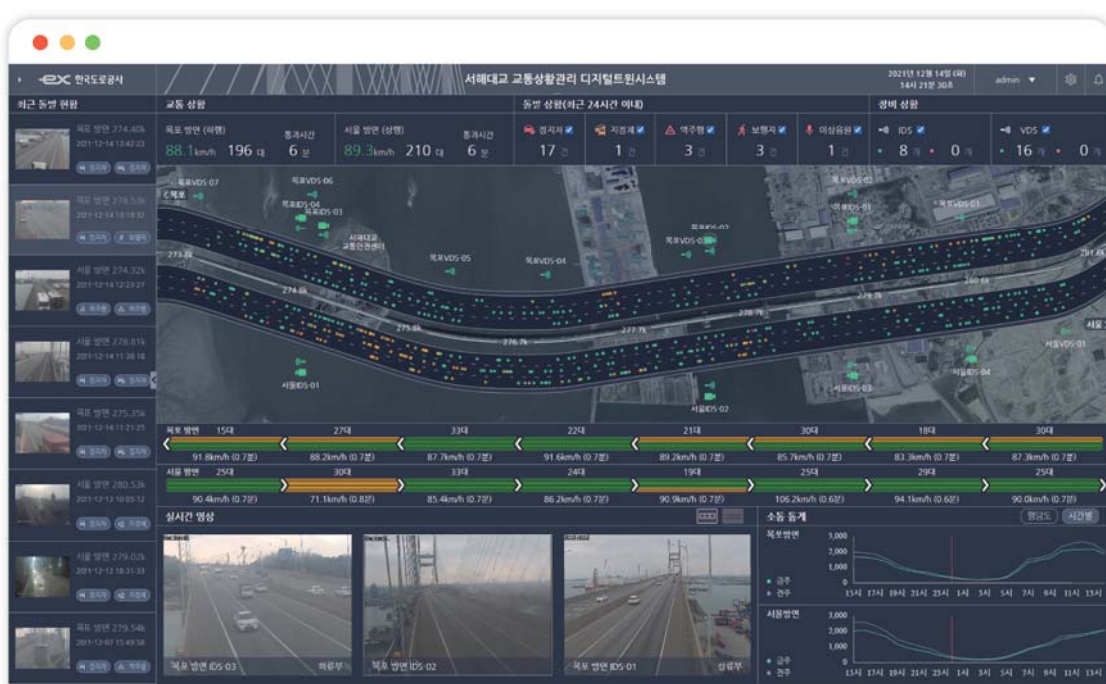
현장&센터 간
지연없는 연결



다양한
교통정보로 활용



실제와 같은
교통 흐름



#재약산터널 #남산1호터널 #봉평터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서해대교 #영종대교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
#경부고속 #강남순환 #자율주행 K-City #상주-영덕 #부산외곽 #세종CITS 등 150여 구간 공급 운영

전남도, 친환경농업 입지 굳힌다…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지속 확충
총 사업비 52%… 88억 예산 확보
유기농 인증면적 2만4697ha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곳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로, 향후 전남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곡성 ‘동막’, 보성 ‘다도락’·‘보향다원’, 강진 ‘영동농장’, 해남 ‘땅끝야베스유기쌀’·‘정윤’, 영암 ‘월출산농협’, 무안 ‘해야’, 함평 ‘백련유기’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는 전국 총사업비(169억원)의 52%를 차지하는 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영광군 백수읍 구수지구에 조성된 친환경 벼재배단지.

/전남도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50%·자부담 20%로 분담해 추진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1곳당 평균 10억원(최대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앞서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대비 지역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법인을 적극 발굴하고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적극 지원한 결과 전국 최다 선

정 결실을 거뒀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2022년 9곳, 2021년 8곳, 2020년 7곳이 선정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말 현재 전남 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3만6106ha로 전국(6만9815ha)의 52%까지 확대됐다.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4697ha로

전국의 63%를 점유하는 등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 입지를 굳히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는 20ha, 벼 이외 품목은 5ha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내에 들어설 ‘전남 산림바이오 거점단지’ 조감도.

/전남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전남, 전국서 두 번째 조성

200억 규모 산림청 공모사업
산림자원 산업화 기지 역할 기대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올해 나주에 지역 특산 토종 산림자원의 대량 생산과 바이오 산업화의 플랫폼 역할을 할 ‘전남형 산림바이오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단지’를 착공한다.

16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는 전국 4개 권역에 조성되는 200억원 규모의 산림청 공모사업이다.

전남은 충북 옥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돼 2025년 완공 목표로 나주의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거점단지를 구축한다.

단지에는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기술센터, 스마트 온실과 묘목 생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림비즈니스센터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소재 연구개발을 위해 천연물화학 분석실과 추출물 보관실, 임산물전처리실 등 연구실을 갖춰, 임업인 지원, 귀산촌 상담, 창업보육, 바이오기업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종자양묘기술센터에는 산업화 대

상 식물 대량 재배를 위해 종자나 식물체를 확보해 대량 증식하도록 종자 저장실을 비롯해 종자활력검정실, 조작배양실, 양묘교육장 등이 구축된다.

스마트 온실에선 발아된 산림식물을 육성해 바이오기업이나 임업농가에 제공해줌으로써 산림자원 산업화의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형 산림바이오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단지’ 건축물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Cross-Laminated Timber)’이란 신기술을 적용한 목조로 조성된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나무를 직각으로 교차해 붙인 목재 제품이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가 있고 벽과 기둥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미 해외에선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건축재료로 ‘미래의 콘크리트’라 불린다.

연구소는 거점단지 건축물에 해당 신기술을 최대한 적용키로 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이미 획득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안동시, 경북 최초 ‘교육자유특구’ 도전

尹 정부 120대 국정과제

안동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특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가 최초로 도전을 선언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등 「규제가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존립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방 도시가 중앙정부의 경직된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

최하며 교육도시로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렸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헬프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 다변화 기반」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다.

시는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안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재정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에서 교육 - 취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8기 안동시 시정방침인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교육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영주시, 청년지원 강화… 164억 투입

5개 분야 50개 사업

경북 영주시는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선제적 대응 및 청년들에게 기회와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분야 36억 원, 주거분야 35억 원, 교육분야 83억 원, 복지·문화분야 8억 원, 참여관리분야 2억 원 등 5대 분야 50개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규모다.

일자리분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만 총 6개 사업 40명을 지원한다.

정규직 프로젝트사업도 병행해 중소기업 취업난 완화와 정규직 전환 촉

진을 위한 고용지원금(기업) 및 근속장려금(근로자)도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농부육성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등 청년의 창농 활성화와 영농정착, 영농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영주의 미래핵심사업인 베어링산업과 연계한 동양대학교 스마트기계 부품소재학과(베어링특성화학과)에는 5년간 총 33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영주(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2023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부산시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부산연고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탓에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며, 부산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 분야의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하윤수 교육감 등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과 부산지역 상공계 주요 기업대표, 부산시 실·국장 및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함께 상경하여 출향인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부산=김영찬 기자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 운행 재개

포항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16일부터 정기운행을 재개한다.

이 철도는 2020년 7월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해상물동량이 급감해 2021년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경북도는 해상 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포항영일만항으로의 선복량이 늘고 운임도 안정되면서 영일만항역을 이용한 철도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운행구간은 포항영일만항역에서 강릉 안인역으로, 연간 14만t의 우드펠릿이 운송될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함평천지전통시장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선정

전남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31개 전통시장 중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약형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영덕군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점검’

영덕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설연휴 환경 특별감시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VIP 문턱 다시 높아진다… 3高에 혜택 줄이고 기준 상향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유통업체, 멤버십 등 서비스 개편

롯데백 등급 7개→5개로 줄여
신세계백 일부 포터서비스 중단

호텔업계 멤버십 등급 기준 개편
수영장 유료 전환, 연회비 올려

엔데믹(풍토화)과 함께 닦친 경기침체에 유통업계가 잇따라 멤버십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 중 보복소비를 잡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문턱을 대폭 낮춘 것과는 정반대다. 원자재값 및 인건비 등 부대비용 상승에 줄어드는 마진을 개선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달부터 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혜택을 줄이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VIP 멤버십을 중심으로 각 업계에서 등급 조정과 서비스 혜택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VIP 등급 조정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곳은 백화점 업체다. 백화점 업체는 지난해 5대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갤러리아·AK) 70개 점포가 38조9515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백화점 업체는 보복소비가 크게 일었던 팬데믹 기간 중 VIP 등급 산정 기준을 낮췄지만 이달 내년도 멤버십 산정 기준을 대폭 높인다고 알렸다. /뉴스1

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 전년도 대비 14% 성장했다. 1조 클럽 백화점은 11개에 달하지만 VIP 멤버십 산정 기준은 도리어 뚝뚝해졌다.

롯데백화점은 내년도 VIP 멤버십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기존 7개 VIP 등급을 5개(에비뉴엘 블랙/에메랄드/퍼플/오렌지/그린 순)로 축소하고 산정 기준도 크게 높였다. 내년부터는 가장 낮은 등급인 에비뉴엘 그린 등급 산정 기준이 연간 1000만원으로 변경되며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 멤버십에서는 최저 등급인 VIP 고객 또한 발렛파킹과 VIP 라운지 이용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에비뉴엘 오렌지(최저 2000만원 구매 고객)부터 제공한다. 에비뉴엘 그린은 VIP 라운지 이용이 중단되며 대신 에비뉴엘 데이크아웃 바에서 음료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3월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은 우수 회원 고객의 등급을 MVG(조우량고객)와 VIP로 나누고 최저 등급인 VIP 등급의 기준을 400만원, V IP+ 등급은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이달 13일부터 멤버스 바에서 제공하던 우유를 매실차로 바꾸고 다음달 1일부터는 대전점 등 일부 지점에서 VIP 등급 고객에게 제공하던 포터 서비스를 중단한다. 포터 서비스란 백화점 쇼핑 후 짐이 많을 때 직원이 차량으로 짐 옮기기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포터 서비스는 점포 사정에 따라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전점은 전면 중단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앞서 포터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VIP 혜택 변경에 나선 것은 호텔업계도 마찬가지다. 롯데호텔은 지난 1일부터 리워즈 멤버십 등급 기준을 개편해 기준을 줄였다. 이전에는 투숙횟수와 숙박일수, 결제금 등 3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멤버십 등급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숙박일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JW메리어트 동대문은 지난 3일부터 실내 수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투숙객들도 성인 5만원, 어린이 2만5000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위커히 호텔은 멤버십 ‘프레스티지 클럽’ 연회비를 올렸다.

CJ올리브영도 강력한 멤버십 서비스에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이 동시에 성장했지만 멤버십 포인트 적립률을 줄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3일부터 멤버십 제도인 ‘씨제이원(CJ ONE)’ 적립률을 베이비 올리브, 핑크 올리브 등급은 1.0%에서 0.5%로, 그린 올리브 등급은 1.5%에서 1.0%로, 블랙 올리브와 골드 올리브 등급은 2.0%에서 1.0%로 각각 축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설명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특히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가 위치한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멤버십 등급 기준 및 혜택 변경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주이용 백화점 변경에 관한 상담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VIP 멤버십 기준을 낮췄던 일부 기업들에서 차별화 혜택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며 “기준을 올리면 턱걸이 고객들이 VIP에서 대거 탈락하기는 해도 매출을 이끌어가는 최상위 고객들의 구매력에 변화가 나타나진 않는다. 기준을 올려도 별다른 매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정관장 제품, 당일신청·배송 받으세요”

KGC인삼공사, 실시간 배송 서비스
정관장물서 ‘매장픽업’ 서비스 진행

KGC인삼공사가 설명절을 앞두고 정관장 제품을 실시간 배송하는 ‘당일신청·당일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는 19일 정오까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택배 마감 후에도 선물을 받아 볼 수 있다.

결제 즉시 배송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원하는 곳까지 직접 배송한다. 전국 800여개의 정관장 로드샵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제품과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상 구

매한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인 정관장물서에서는 ‘매장픽업’ 서비스도 진행한다. 매장픽업 서비스는 정관장물서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알람톡 또는 SMS 제품교환권을 수령하여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정관장 매장에서 제품 픽업이 가능한 서비스다.

선물을 직접 들고 다니기 힘들거나 배송처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때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매금액대별 혜택과 매장픽업 쿠폰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카카오옥 선물하기’를 통해 정관장

홍삼을 전할 수도 있다. 2016년 카카오옥 선물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매년 연평균 61%의 성장률은 기록하고 있는 정관장은 작년 한해에만 77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설을 맞아 ‘새해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프로모션을 25일까지 진행한다. ‘활기력’ ‘홍삼지분’ ‘여유랑편’ ‘진심편정성’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 등 실속제품부터 최상의 SA T등급 녹용을 사용한 ‘천복’ 등 프리미엄 제품까지 구매 금액대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마트24, 올 ‘디지털 혁신’ 원년 선언

점포·고객에 모바일 등 ICT 접목
전화 한 통으로 심야 무인매장 출입
올 ‘스마트 출입인증기’ 도입키로

신규점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
최고사양 ‘차세대 PDA’ 이달 도입

이마트24가 올해를 디지털 혁신 원년으로 삼는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3D,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본사에서 점포와 고객에게까지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24는 올해 전화 한 통으로 심야 시간 무인 매장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 출입인증기’를 도입한다. 스마트 출입인증기는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에 적용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마트 출입인증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익숙해진 ‘안심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출입인증기에 안내되는 안심콜 번호로 전화 한 통이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경영주들을 위해 기존 PDA(휴대용 단말기)도 고도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차세대 PDA도 선보인다. 차세대 PDA는 처리 속도를 기존 대비 2배 향상시켜, 상품검수·발주·상품조회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기능을 1초 이내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능성과 가독성을 높인 UI·UX 디자인을 적용해 경영주들이 PDA를 스마트폰처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신규점에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5.5인치 화면의 동업계 최고 사양 차세대 PDA 단말기가 도입되며, 기존 점에는 처리속도 개선과 사용자 편의성



차세대 PDA(위), 스마트 담배자판기. /이마트24

을 강화한 새로운 버전의 PDA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 줄 수 있는 ‘스마트 담배자판기’도 하이브리드 신규점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마트 담배자판기는 셀프 계산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담배자판기와 결합해 일반 상품을 결제하는 것처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구입은 모바일PASS(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로 성인인증 후 가능하다. 앞서 이마트24는 무인매장에서 본인인증 후 주류를 꺼내고 문을 닫으면 자동결제 되는 AI기반 주류판매자판기 ‘요술술장’을 30여개 매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3D 디지털 창업안내서’도 예비경영주에게 몰입감 있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입한다.

3D 디지털 창업안내서는 예비경영주들에게 실제 점포모습을 3D 가상공간으로 구축해, 다양한 점포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서현 기자

올리브영, 연매출 100억 브랜드 38% 꺾충

작년 21개 브랜드서 매출 127% ↑

올리브영이 지난 3년간 입점 브랜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올리브영에서의 연 매출이 100억원을 넘어선 브랜드 수가 2021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입점 후 처음 매출 100억원을 넘긴 브랜드 수는 21개로, 올리브영에서 이들 브랜드의 매출은 2021년과 비교해 127% 증가했다. 이 중 19개 브랜드는 중소기업 브랜드였다.

이들 브랜드를 살펴보면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헤어용품, 건강식품 등이었다. 닥터지, 클리오, 라운드랩, 롬앤 등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대기업 브랜드를 제치고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넘버즈인, 어뮤즈, 데이지크, 어노브 등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황리 진행된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에서 국내 클린뷰티 브랜드 ‘라운드랩’이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신진 브랜드 또한 1년 만에 100억 클럽에 들었다.

올리브영은 이번 쾌거가 판로지원과 함께 신진 브랜드와 동반성장 하기 위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인큐베이팅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김서현 기자

스타벅스, 2023 설 맞이 바리스타 추천 선물세트

스타벅스가 2023년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티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릴랙싱 시트러스 티 세트’와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스타벅스 설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에 출시되는 ‘릴랙싱 시트러스 티 세트’의 구성품으로는 작년 30~40여 성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뉴이어 시트러스 티’를 만들 수 있는 ▲시트러스 시럽 600ml ▲건조 오렌지 ▲레몬그라스 ▲티바나 유스베리 티와 추천 레시피 카드이며 취향에 맞게 물, 티백, 토핑의 양을 조절해 나만의 시트러스 티를 즐길 수 있다.

12일에 출시한 ‘스타벅스 홈카페라떼 세트’도 커피와 함께 하는 특별한 명절 선물로 눈길을 끈다.

/이세경 기자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키우는 기업들… 선점 경쟁 ‘불꽃’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개발 박차
셀트리온, 휴미라 美 특허만료 앞뒤
동아에스티, 스텔라라 임상3상 진행



셀트리온이 개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폴라이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초부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채비로 분주하다. 올해 미국에서 특허 만료가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동아에스티 등 국내 기업들은 휴미라와 스텔라라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애브비가 판매하는 휴미라는 2021년 한 해 전 세계

에서 약 316억 달러(약 40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안센이 개발한 스텔라라는 지난 해 3분기 누적으로만 168억 달러(약 21조원)를 벌어들인 전세계 가장 수익이 높은 바이오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16일 유럽의약품청(EM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폴라이마의 20mg/0.2ml 용량 제형을 추가하는 품목변경 허

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 허가 받은 유폴라이마 40mg/0.4ml과 80mg/0.8ml 두 가지 용량 제형에 더해 20mg/0.2ml(이하 20mg) 용량 제형을 추가한 것이다.

저용량이 추가되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소아 환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국가의 입찰 참여 조건을 충족하거나 평가 점수 상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미라는 올해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7월부터 유폴라이마의 미국 판매에 돌입할 수 있도록 애브비와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역시 이날 스텔라라바이

오시밀러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다. 이번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은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총 9개국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판상 건선 환자 총 605명을 대상으로 52주간 진행됐다.

또 EMA와 FDA 의견에 따라 품목 허가를 위한 일차 평가변수의 평가시점을 각각 ‘8주’와 ‘12주’로 다르게 설정해 진행했다.

동아에스티는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일차 평가변수인 건선 면적 및 중증도 지수(PASI)의 베이스라

인 대비 백분율 변화에 대한 8주와 12주의 평가 결과에서 스텔라라와 치료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안전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MA와 FDA의 각 기준에 따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추후 유럽 및 미국에 품목허가 신청 시 빠르고 긍정적인 검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은 “성공적인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과 유럽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인타스, 어코드 헬스케어와 긴밀히 협조해 DMB-3115가 글로벌 시장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국내 제약바이오 6개단체 혁신성장 ‘맞손’

‘韓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결성
산업계 현안 관련 적극적 의견 제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6개 단체가 손을 잡고 혁신 성장에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 제약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16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 국내 제약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산업 등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사들을 모두 합치면 957개(일부 중복)에 달한다.

6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초도 모임을 가진 뒤 연합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참여 단체들은 각 회원사들과 함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발전과 대국민 인식 제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결성했다. 최병현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사무총장, 백승열 한국 제약수출입협회장, 김세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홍성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비롯, 산업계 현안 관련 정부·국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화·융복합화 관련 선제적 어젠다 제시와 공유 ▲참여 단체 현안 관련 공동 보도자료·성명 등 배포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지원 공약과 제안 등을 추진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우선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각 단체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포럼도 개최하기로 했다. 격월로 각 단체가 번갈아가면서 주관하며 이르면 2월부터 진행하자는데 단체 대표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6개 단체장은 공동 대표를 맡게 되며, 포럼 개최 준비 등 원활한 연합회 활동을 위한 간사 단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실무 간사는 이재국 협회 전문가가 맡는다.

/이세경 기자

LG생활건강, ‘벨먼 퍼퓸드 리추얼’ 첫 선

프랑스 ‘로베르테’와 공동개발

LG생활건강은 영혼을 깨우는 향의 심포니 브랜드인 ‘벨먼 퍼퓸드 리추얼’을 16일 처음 선보인다.

벨먼 퍼퓸드 리추얼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기존 제품에서는 느낄 수 없던 사위의 행복한 가치를 선사하는 바디케어 브랜드다.

이번에 출시되는 바디워시와 바디밀크는 170년 전통의 세계적인 프랑스 향료회사인 로베르테와 공동 개발한 3가지 향을 담은 무드로 구성됐다.

시그니처 무드인 ‘찬란(MOOD #10)’은 시간이 멈춘 듯 마치 꿈에 그리듯 벅차 오르는 천국 같은 순간을 표현했다. 두 번째 무드는 내면에 숨어있던 열정이 불꽃처럼 끓어오르는 순간을 그린 ‘열망(MOOD #1)’이다. 이슬 맺힌 촉촉한 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을 연상시키는 촉촉한 느낌의 우드향이다. 거침없이 타오르는 열망의 모습을 향기에 담았다. 세 번째 무드는 사색하는 새벽에 온전한 자아를 느끼는 힐링의 순간 ‘그래, 나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을 담은 ‘사색(MOOD #0)’이다. 새벽녘 고요한



LG생활건강 ‘벨먼 퍼퓸드 리추얼’.

숲 속이 떠오르는 샌달우드 향인데, 한적한 사원에서 명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예술적인 향의 벨먼 퍼퓸드 리추얼 바디워시는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레티놀, 판테놀 등 피부에 좋은 스킨케어 성분도 담았다. 오밀조밀한 오일 거품이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사워한 뒤에도 당기지 않는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우유처럼 부드러운 바디밀크는 피부에 바르는 즉시 부드럽게 스며들어, 마치 실크 슬립을 입은 듯 매끄러운 피부를 선물해준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헬스포트 제휴… 디지털 전환 가속

통합 약국 플랫폼 개발사와 맞손

광동제약은 통합 약국 플랫폼 개발사 헬스포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업계 디지털 전환 흐름에 앞장선다고 16일 밝혔다.

헬스포트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 ‘굿팜’을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이다. ‘굿팜’은 약국 경영자를 위한 재고관리·의약품발주·감사 등이 가능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이 사용하는 별도의 ‘모바일 약국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처방전스캔·조제주문·복약상담·건기식 추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용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약국 처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리하게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굿팜’의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오픈한 약국전용 온라인몰 KD샵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스타트업의 기술력 간 시너지를 활용,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헬스포트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들은 KD샵과 직접 연결된다.

광동제약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업무시스템의 디지털화, 데이터에 의한 전략 수립 등 조직 내 경영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 도입과 같은 업계 전반의 변화 흐름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이세경 기자

HK이노엔-삼양홀딩스
‘제넥솔주’ 공동판매

HK이노엔이 항암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항암 시장 지위 제고에 나섰다.

HK이노엔(HK inno.N)과삼양홀딩스는 서울 중구 HK이노엔 서울 사무소에서 항암제 ‘제넥솔주’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한 공동 판매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제넥솔주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공동으로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하고, 그 외 지역은 HK이노엔이 맡을 예정이다. 국내 유통 및 판매는 HK이노엔이 맡는다. HK이노엔은 앞서 13년간 삼양홀딩스와 제넥솔주 공동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K케미칼 물없이 복용 ‘혈액투석 치료제’ 출시

국내 유일 난치성 소양증 치료제

혈액투석환자의 ‘난치성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인 레밋치가 물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정제로 출시된다.

SK케미칼은 ‘레밋치구강붕해정’ 2.5㎍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레밋치는 혈액투석환자의 난치성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 지난 2016년 연질캡슐의 형태로 SK케미칼이 일본 도레이로부터 도입한 국내 유일의 난치성 소양증 치료제다.

국내 혈액투석환자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으로 혈액투석환자의 35% 이상이 소양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난치성 소양증 환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레밋치구강붕해정’은 물 없이도 입 속의 침으로 빠르게 용해되기 때문에 알약을 삼키기 힘든 고령자나 수분 섭취에 제한을 받는 환자에게 유용하다.

신장기능이 떨어진 혈액투석환자는 체내에 쌓인 대부분의 수분을 혈액 투석을 통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물 섭취가 제한적이라 음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혈액투석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Krispy Kreme DOUGHNUTS × miffy



HAPPY NEW YEAR with MIFFY

KRISPY
KREME



Illustrations Dick Bruna © copyright Mercis bv, 1953-2022

LOVELY RABBIT FOOT

MELON



CARROT GARDEN

Krispy Kreme DOUGHNUTS



신보,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맞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일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백남길 전기공제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카카오모빌리티, 당산동에 '네모개러지' 오픈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미래이동체 연구 및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연구소 'NEMO(Next Mobility) Garage(네모개러지)'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네모개러지 개소식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 /카카오모빌리티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 지원 성장발표회

KB손해보험은 홀트아동복지회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런던챌린지 2기 성장발표회를 홀트아동복지회 빌딩에서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7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IT, 제과제빵, 공인중개사, 디자인 등의 기술교육 분야에서 자립을 이뤄냈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BYC, 설 맞이 직영점 할인 행사

BYC가 21일까지 직영점 할인 행사를 연다. BYC는 설맞이 행사로 추동제품 구입 시 추가로 20%를 할인해준다. 추동제품은 기능성 발열웨어 보디히트와 에어메리, 양면내의, 기모, 극세사, 핑크소재 파자마 등 전품목에 해당한다. 신제품 구매 시 1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김서현 기자

인사

◆국기보훈처 ◇3급 승진 △복지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석기
◆통계청 ◇과장급 인사 △물가동향과장 백지선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우열 △강원지방통계지청장 유영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이승재 △어문연구과장 김선철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 권태호 △한국정책방송원(과장 직위) 이찬구

부음

▲ 최만림(경남도 행정부지사)씨 부친상 = 15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55-249-1700
▲ 김귀진씨 별세, 유경(규병원 약제과장)·유명준(전 부산일보 편집위원)·유길준(성소병원 마취과장)씨 모친상, 이정문(이정문성형외과 원장)씨 장모상, 김희화(부산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박꽃조씨 시모상 = 15일, 부산 동래구 착한전문장례식장 3층 VIP 2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10-2895-6975
▲ 이정임씨 별세, 안치형·치열(태영건설 건축본부장)·치준·치환씨 모친상, 김해경·이영숙·신은혜·김미옥씨 시모상, 경기 화성시 조암장례식장 1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31-358-4440

CJ대한통운 후원 김시우, 美 PGA투어 '우승' 쾌거

‘소니 오픈’ 우승컵, 통산 4승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
“CJ대한통운 지원 큰 힘”

CJ대한통운이 후원하는 김시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4승째를 올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굿샷’을 줬다.

CJ대한통운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 오픈 인 하와이’에서 자사 소속 김시우 선수가 최종합계 18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했다고 밝혔다.

김시우는 대회 마지막 날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해이든 버클리(미국)를 1타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우승상금은 142만2000달러(17억6000만원)다.

김시우는 2라운드 공동 16위에 그쳤지만 3라운드에서 선두와 3타 뒤진 공동 5위로 마지막 라운드 1~3번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6타를 줄이며 맹추격에 나섰다. 김시우와 버클리는 17번홀과 18번홀에서 희비가 갈렸다.

17번홀에서 김시우의 티샷은 그린을 살짝 벗어난 홀 8m 지점에 떨어졌다. 좀 부담스러운 거리였지만



김시우가 15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알로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시우는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올라 결혼 후 첫 승, PGA 통산 4승을 달성했다. /뉴시스

침착하게 날린 칩샷이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공동 선두에 올라섰다. 경쟁상대인 버클리도 16번홀에서 버디를 했다.

선두 타자 김시우의 승부사 기질은 18번홀(파5)에서 돋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17번홀에서 칩인 버디가 들어가기 전에 버클리 선수가 버디한 것을 알았다. 저도 잃을 게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 것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흐름이 저에게 왔다. 18번홀에서는 제가 앞조여서 먼저 버디를 하면 상대 선수가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전했다.

김시우가 먼저 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버클리는 17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실패하고 18번홀에선 버디를 놓치면서 1타차로 김시우에게 우승을 선사했다.

김시우는 2016년 윈덤 챔피언십과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어 이번 우승까지 합해 PGA 투어 4승을 달성했다.

이번 우승을 통해 한국 남자골프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지속적인 후원은 선수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속 선수들의 경기 장면이 연일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이사장 25년간 쌀 기부… 약 32억원 달해

에이스침대 창업주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사진)이 2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에이스경암은 안 이사장이 설을 앞두고 올해도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경기 성남시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량은 백미(10kg) 5900포로 이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622세대와 소년·소녀 가장 278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99년부터 매해 설과



추석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미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안 이사장이 기부한 백미(10kg)의 양은 13만6560포(1356t)에 이르는 양으로, 약 32억원 어치에 달한다.

안 이사장의 기부활동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 철학에서 비롯됐다. 안 이사장은 어려운 매일수룩 사회와 함께 해야한다

는 마음을 갖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결 같은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 이사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와 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은 민족의 온정을 나누는 설 명절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며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달 드린 백미로 지은 든든한 쌀밥과 함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BQ 미니콘서트 개최

제너시스BBQ 그룹이 20일 서울 송파구 소재 ‘BBQ 빌리지 송리단길점’에서 힙합·R&B 음악 전문 채널 ‘딩고 프리스타일’과 ‘새해만나 BBQ 미니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공연을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의 오프라인 접점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래퍼 헤이즈와 저스디스, 최근 쇼미더머니 시즌10출연으로 화제가 된 임플란티드키드가 함께한다. 지난 11월 협업을 통해 ‘레게 만나 자메이카’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한국 레게 양대산맥 스킵&쿤타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 17번째 ‘판매거장’에 이석이 영업부장

누적 판매 5000대 이상 돌파
“내 차 산다는 마음으로 정성 쏟아”

현대자동차는 천안서부지점 이석이 영업부장(만 55세)이 ‘판매거장’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판매거장은 누적 판매 5000대를 돌파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지금까지 단 16명만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도달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이석이 영업부장은 지난 1993년 현대차에 입사해 29년 만에 5000대 판매를 달성하며 17번째 판매거장에 등극했다.

이석이 영업부장은 “29년 간 항상



현대차 17번째 판매거장으로 선정된 이석이 영업부장.

성실한 태도와 부지런한 자세로 고객을 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내 차를 구매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정성을 쏟은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완전무결하게 준비하겠다”며

“6,000대 이상 판매거장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명예 포상 제도 ▲전국 판매왕 및 더클래스 어워드 제도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 명예 포상 제도는 누계 판매 ▲2000대 달성 시 ‘판매장인’ ▲3000대 달성 시 ‘판매명장’ ▲4000대 달성 시 ‘판매명인’ ▲5000대 달성 시 ‘판매거장’이란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양성운 기자 ysw@



여성창업, 주부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자



이 상 현 의

창업 칼럼

한 남자의 여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와 딸... 참으로 여러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현대의 주부들은 이 시대의 원더우먼이 되기를 요구 받는다. 고학력과 경험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도 결혼 후에는 주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묻혀지고 무시당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개혁할 사람은 역시 주부다.

창업 시장에서는 가장 실패확률이 높은 집단을 주부창업으로 꼽는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부창업시 최대의 적, 즉 '남편'이라고 불리는 집단 때문이다. 창업은 먼저 가정의 동이가 필수인 사업이다. 남편과 아이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협업이 없으면 도저히 주부창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남편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창업 일선의 아내가 마치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환상의 소머즈나 원더우먼이 되길 바란다. 남편이 퇴근할 때 집에서 맞이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잘 보고 보살

피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지냈으면 하고, 가급적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으로만 창업을 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왕 시작했으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게 대다수 남편들이 창업을 결심한 아내들에게 바라는 내용들이다.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외치고 싶다. "그럼 당신이 직장 때려치우고 창업해라!"

물론 최근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감행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개척하는 남편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은 밝지 않다. 창업은 세심하고 꼼꼼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의 영역이 창업이다.

창업은 고객관리로 승패를 결정한다. 고객 서비스는 친절함과 구매욕구 충족 그리고 성실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러한 범위를 가장 성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주부일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을 원하는 주부들에게는 다음을 조언한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의 주 고객, 즉, 표적고객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할 것. 결국 표적고객들의 구

매성향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VARICE(과욕), 둘째 INERTIA(타성), 셋째 DELUSION(착각), 넷째 SELF-ABSORPTION(자아도취)이다.

지나친 낙관과 의욕은 화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가정생활이 자칫 타성에 젖어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극소수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며 마치 나도 될 수 있다는 쉬운 착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부창업이 힘들다고 세인들은 말한다. 이러한 점만 잘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주부창업이 오히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주부는 위대하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유형의 창업자들도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위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주부인 것이다. 진정 주부창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서울시의 '깜깜이' 시정



기 지 수 첩

김 현 정
(정책사회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원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안전감사... 서울시는 감사지옥, 직원들은 골병든다' 지난 2021년 10월 국감 때 서울시장 1층 로비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시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파켓을 들고 시위했다. 얼핏 보기에는 '감사 좀 줄여달라'고 투정부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업무 쓰나미에도 시청 공무원들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국정수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할 의

무가 있기에, 시청 가족들도 매년 국감 때마다 곤혹스러울 정도의 업무 강도를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뭇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들고일어난 것일까. 자기들이 파탄 흘러 만든 자료가 시민들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낸 논평에서 "사실상 연중 내내 각종의 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느라 시달려온 공무원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국감다운 국감은 없었다"며 "질의시간 내내 특정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고성인 시도 때도 없이 오갔으며 민생을 살피는 정책 국감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한탄했다.

공무원들은 매년 1만 건의 자료요구 폭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자료 좀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에서 서울시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위반해 늦게 내고 ▲시정질문시 10일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생성한 자료가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깜깜이 시정'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16일 서울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결재문서 실공개율(전부 공개건수/전체 건수*100)은 월평균 20.6%였으나 오세훈 시장이 집권한 2022년에는 7.5%로 13.1%p 폭락했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48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0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72년생 깊은 밤이 지났으니 아침이 온다. 84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낭비.



37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 49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61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 73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팔듯하나 자중할 때. 85년생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38년생 자식자랑에 입에 침이 마른다. 5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착각. 62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4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86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여 대니 같을이다.



39년생 손풍에 뒤편바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1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63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75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결정이 필요. 87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40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52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64년생 굶은 나무가 산소를 지킨다. 76년생 스스로를 응원하라. 88년생 다시 분투노력하면 어려움은 뛰어넘을 수 있다.



41년생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는 이치. 53년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 65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77년생 미흡하다고 느끼면 중지. 89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42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54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66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78년생 망설이지 말고 도전. 90년생 우울증이 다시 재발되는 시기인 듯.



43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득이 된다. 55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옷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6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79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된다. 91년생 누군가에게는 호운이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는데.



44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6년생 야캣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68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80년생 자신의 인생이니 자신감으로. 92년생 전력이 동료에게 뒤질지라도 성실성으로 극복해나가야.



45년생 종사의 하락으로 맥 빠지는 날. 57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 다녀본들. 69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으로 지혜를 모으도록. 81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93년생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을.



46년생 사람 많은 곳은 주의. 58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70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명만 있어도 성공한다. 82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라. 94년생 반대의 속성이라도 다른 한쪽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렵다.



47년생 흠속에 감춰진 보물처럼 비상금이 있다. 59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71년생 지출보다 소득이 많이진다. 83년생 재물 운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95년생 부자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정해야만.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⑤



십간별十干別 다자간의 조합에서 볼 때 임갑병壬甲丙의 구조는 강휘상영부유영江輝相映浮柳影으로 혁신적으로 출세하는 구조이다. 임인년 임인월 임인일 임인시壬寅年 壬寅月 壬寅日 壬寅時 한눈에 봐도 거부의 팔자다. 상당한 재력가이나 가정사만은 편치를 알아 방법을 찾으려 왔다. 인寅속에 병화丙火가 있다. 지지 인寅은 삼합三合과 같은 강한 효력이다. 자녀들은 외국에 있고 집안일 보는 외부 식구들을 빼면 둘만 사는 입장이다. 임수壬水가 갑목甲木을 만나 무게감이 있고 너무 먼 먼 미래까지를 바라보며 계획 하에 산다. 회사의 경영주라해도 3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니 미래의 일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통한다. 그러다보니 집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대화를 해봐야 통하지를 않는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되면 인사형寅巳刑이 되니 부인포함 사돈 측에서 제동을 걸 것이다. 형刑이 되니 자연적 이별보다는 떠들썩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작용이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다해도 사화巳火부인이 회사 나누고 나가겠다고 할 것이다. 골치 아프게 된다. 이때는 오후午火나 술戌을 개입시키면 된다. 지금부터 개를 키워라. 집안에서 말쑥을 키울 수가 없으니 부인이 개戌 종류를 선택을 해서 강아지를 키워라. 처음부터 큰개를 키우지 말고 아가 강아지 때부터 데려와 키워야한다. 갑목甲木으로 3마리 이상이다. 사주의 흐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위해서 흐름을 본다. 남녀가 결혼하면서 내 팔자가 오묘냥 될 줄 누가 알았겠냐. 할 수도 있듯이 시작은 어디이고 어떻게 살며 무엇으로 끝이 되는가를 알아내는 앞날의 추론이 가능하니 작은 행위로 큰 틀의 흐름을 길 선하게 바꾸어 갈수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2	6	7			8	
7	8						2	
			9					5
						8		2
5								3
9		8						
6					4			
	4						9	7
	3			2	9	6		

	2		5				6	
8		6	3					7
			9				8	
						4	1	5
3	1	5						
	5				6			
2					5	9		1
	3				8		5	

정답

ㄱ	9	6	ㄷ	ㄴ	ㄷ	ㄷ	8
ㄴ	6	9	9	8	ㄴ	ㄷ	ㄷ
8	ㄴ	ㄷ	ㄷ	ㄷ	9	6	9
ㄴ	9	9	ㄷ	ㄷ	8	ㄷ	6
9	ㄴ	6	8	ㄴ	ㄷ	9	9
ㄷ	9	6	9	6	9	ㄷ	ㄴ
9	9	ㄴ	ㄷ	8	6	9	ㄴ
9	ㄷ	ㄴ	ㄷ	9	ㄷ	6	8
6	8	ㄴ	ㄴ	9	ㄷ	9	9

ㄷ	9	9	8	6	ㄴ	ㄴ	ㄷ	ㄷ
ㄴ	ㄴ	6	9	9	ㄷ	8	9	ㄷ
9	ㄷ	8	9	ㄴ	ㄴ	ㄴ	9	6
9	6	ㄷ	ㄴ	8	9	ㄴ	ㄷ	ㄷ
8	9	ㄴ	6	9	ㄴ	ㄴ	ㄷ	9
9	ㄴ	ㄷ	9	ㄴ	9	6	8	ㄴ
ㄷ	8	ㄴ	9	6	9	ㄴ	9	ㄴ
ㄴ	ㄴ	9	ㄴ	ㄷ	9	6	8	ㄴ
6	9	9	ㄴ	8	9	ㄷ	ㄴ	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中企 성장사다리 지원…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목표

산업부, 수출 2000억 달러 확대
1조 규모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10년간 R&D 자금 1.5조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을 1만 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 고용은 250만 명, 수출은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10년간 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로 만든다.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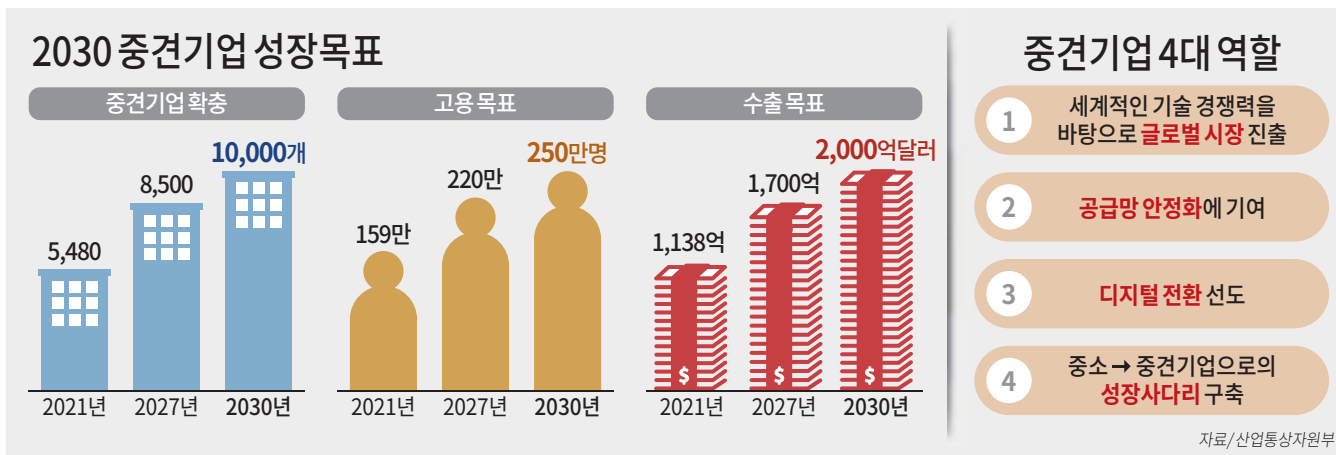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5480개사, 수출은 1138억 달러다.

정부는 중견기업들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27년 중견기업 8500개 달성’을 지나 3년 후인 2030년엔 1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30년 최종 목표를 위해 2027년 기준 고용은 250만명, 수출은 1700억 달러를 1차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성장 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방향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 첨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첨단 제조, 스마트 가전, 미래형 조선, AI로봇, 항공,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정보통신,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을 주렸다.

이들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DX)에 2033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 각 분야별로 선도기업군 100~150개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5대 핵심 산업 내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진입 속도를 높이는 지원트랙도

운영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매년 100개씩 ‘고성장 혁신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R&D, 수출, 인력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합 패키지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견기업들이 신사업·신기술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사업 발굴→기술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다.

신사업 발굴 단계에선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만나 신사업·신기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얼라이언스(동맹), 산학연·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 확보 단계에선 중견기업 R&D를 ‘신청→평가→선정’ 전주기에 걸쳐 투자 촉진형으로 전환해 사전에 투자 받은 기업의 경우 R&D 선정시 우대한다.

투자·재원 확보 단계에선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출시한다.

법, 규제, 인력 등의 지원제도도 정비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견기업계가 발표한 ‘2027년까지 160조원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진단반’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외에 수도권 위주로 열린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확대해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 대해 “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견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수로, ‘전략’이 제시한 KDB산업은행의 6000억원 규모 전용 융자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에 더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견기업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단순히 특정 기업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의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의 기본 조건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전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제반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차례상, 시장 27만원… 마트보다 6만원 싸

〈4인 가족 기준〉

소진공, 27개 품목 가격 조사
작년 설 보다 전통시장 3.1% 상승
고사리·깐도라지·대추 등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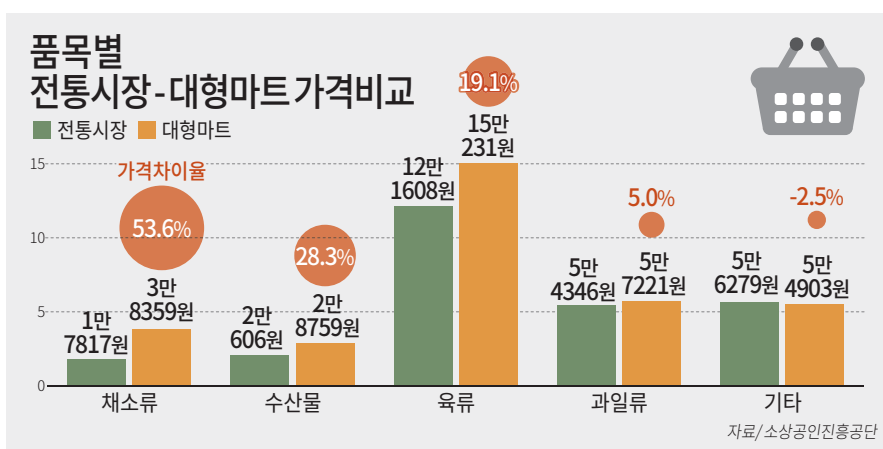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5만800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지난 3일부터 6일 사이 전국에 있는 37개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16일 내놓은 결과다.

소진공에 따르면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은 전통시장이 27만656원, 대형마트가 32만9473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8817원(17.9%) 저렴한 모습이다.

27개 조사 품목 중에선 19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특히 고사리(66.7%), 깐도라지(65.6%), 대추(47.7%), 동태포(45.5%), 숙주(42.8%), 탕국용 쇠고기(34.7%) 등의 가격이 싼다.

품목별로는 채소류(53.6%), 수산물



(28.3%), 육류(19.1%)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3.1% 상승(26만2645→27만656원)한 반면 대형마트는 3.6% 하락(34만1859→32만9473원)했다.

소진공은 과일류, 채소류의 경우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및 저장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한파와 폭설로 대과와 무 등 일부 채소류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소고기는 도축 마릿수 및 공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돼지고기는 생산량과 공급량이 증가했지만 외식 수요 증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위기감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호 이사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1월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고 있으며 총 상품 5억원 규모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기간 신선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이태원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중기부, 용산구청 4층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이태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지원센터는 용산구청 4층에 자리를 잡았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등을 위한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용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해 합동으로 원스톱지원센터를 꾸렸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에 대한 현장안내,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답변 및 소관기관 전달·검토결과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성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임원 전원과 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진공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기초실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인권위 “외국인에 음주운전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사진 뉴시스
▲ 이번주 검찰 인사위… “중요사건 수사” 감안해 소폭 단행 전망

▲ “겨울철 전기제품, KC인증·리콜여부 확인해야”
▲ 당정, 교육개혁 협의… “유보통합·늘봄학교,尹정부 소명”



▲ 수도권매립지공사, 설연휴 마지막 날 폐기물 특별반입
/사진 뉴시스
▲ 심상창은 고용상황… 고용장관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경기도, 올 공공건축물건립 32곳 추진… 3314억 투입

공사 진행 17곳, 나머지 연내 준공
유기농복합센터 12월 준공 예정
민간전문가 함께 안전·품질 제고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314억 원을 투입해 32곳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3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화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수원), 군포소방서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광주), 아프



2023년 추진 중인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

/경기도

리카페지열병 정밀검사시설(양주),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등 15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역

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방향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

에 연 면적 2963㎡ 규모로 240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2022년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5250㎡에 165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 5160㎡ 규모로 214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7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사업 추진과

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자문을 통해 안전 및 품질 관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1월), 해빙기(3월), 풍수해 및 폭염(6~7월)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현장 대응 체계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사업 42곳(총 사업비 3323억 원)을 추진했으며, 이 중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양주), 성남소방서, 소방학교 후생관(용인) 등 18곳을 완료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metroseoul.co.kr

‘메타버스 서울’서 오세훈 시장 만난다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청사진
서울광장·시민참여 공모전 등 조성
시장실에선 자유롭게 소통 가능

서울시는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단계로 경제·교육·세무·행정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유·동행·연결을 핵심 가치로 ‘메타버스 서울’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상담·교육 등 행정 서비스를 담았다.

우선 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책 읽는 서울광장, 시민 참여 공모전, 메타버스 시장실을 조성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다. 시민참여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저작도구를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우수 작품은 공모전 가상공간에 전시된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실제 공간을 가상 공간에 재현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 또 시민들은 의견 제안을 통해 시정 비전을 제시한 후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핀테크랩, 기업지원센터, 서울 10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16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열린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관광명소도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됐다. 핀테크랩에서는 82개 입주 기업의 홍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 대표 면담도 가능하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창업·법률·인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회의가 가능하다.

방문객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10대 관광명소인 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한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 광장을 메타버스 서울

에서 만날 수 있다.

시민 소통 채널로는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만원 채팅상담, 택스퀘어가 마련됐다. 멘토링 상담실에서는 대면 상담에 부담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상담사와 만나 고민을 나눌 수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120만원 채팅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7종의 행정 서류 발급을 안내한다. 택스퀘어에서는 챗봇을 통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올해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타버스 서울’은 뉴노멀 시대에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즐기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체험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선발

공공형 2000명, 민간형 2250명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5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이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2000명 모집)과 민간형(2250명 모집)으로 나뉜다.

공공형 참여자는 약자동행형, 경력형성 분야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시는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약자동행형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고, 경력형성형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다.

시는 이달 16~20일 공공형 뉴딜일자리 사업 181개 중 152개 사업에서 976명

을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다음달까지 참여자를 개별 모집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총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신청장 협회는 20개 이상)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청년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참여자 교육(1~3개월)과 인턴십(3개월)을 연계한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은 복지·문화예술·콘텐츠·디자인·관광·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협회(단체)를 선정, 참여자 교육(최대 1개월)과 인턴십(최대 8개월)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형은 사업 수행기관 접수·선정을 거쳐 올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설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00억 발행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3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8~1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동시 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

획이다.

강북구·광진구를 포함 13개 자치구는 이달 18일에, 중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오는 19일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결제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유 한도 내에서 상품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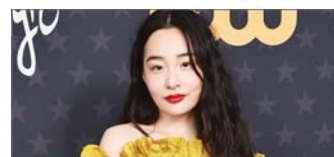


▲中 언론 “미·대만 무역협상 정치쇼… 실질적 성과 없어”

▲美, 네바다주 리튬 채굴에 8600억원 지원 /사진 뉴시스

▲WSJ 설문조사 “올해 美 경기침체 확률 61%”

▲조지 샌토스 논란 계속… 美 공화, ‘제식구 감싸기’ 기류



▲‘파친코’, 美 크리티크스초이스 수상

/사진 뉴시스

▲“中 베이징 1월말 감염률 92% 달할 듯”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산업]
갤S23
역대급 성능에
판매가 인상설
08

metro[®]

Life

[라이프]
유통업계
VIP 문턱
다시 높아진다
L1



바른투자자 ‘함께’ 녹색금융으로 ‘멀리’ ESG경영으로 행복한 내일 만든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ESG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SG 체계 구축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이사회 아래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 기틀을 확립했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승인하고 분기마다 진행 현황을 관리 감독한다. ESG경영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는 ESG경영 혁신팀을 신설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ESG경영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과 서스틴베스트로부터 ESG 종합등급을 B+, AA(탁월)를 받았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MZ세대 투자인식 보고서 발간 등으로 ESG 경영 노력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ESG 정보와 지속가능경영 추진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라는 ESG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E), 지속가능한 책임경영(S),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G)를 ESG 3대 경영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건전한 지배구조라는 큰 틀에서 분야별로 한화투자증권의 ESG경영 성과 및 계획을 상세히 다뤘다.

이외에도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2022 MZ세대 투자인식 보고서, MZ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발간했다. 새로운 소비와 투자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MZ세대들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고 바른투자자로 안내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한화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인낸셜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콘텐츠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임팩트 투자와 같은 바른 투자를 더 많이 알리고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금융감독원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예측해 기업에는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토록 하고, 금융권에는 효율적인 자금 배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 1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8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금융감독원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 지난해 7월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서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분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스마트한화KDB경기탄소중립ESG펀드' 결성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3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블루밍데이'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ESG 위원회 설치 등 ESG경영 체계 구축 노력
MZ세대 바른투자 돕는 전문 콘텐츠 지속 제공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 강화
플라워박스·기부물품 만들어 힘든 이웃 응원



개발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손실 규모를 측정한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기후리스크에 직면한 시대에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한화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 녹색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분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한화KDB경기탄소중립ESG펀드'에 총 1030억원을 결성했다. 이 펀드는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5조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 일환이다. 저탄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기 기업과 그린뉴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펀드 운용을 위해 'ESG 투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ESG평가방법론'을 자체 개발해 신규 투자 시 3단계 ESG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매년 ESG평가 재심사로 투자 후에도 ESG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3회 이상 투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적용했다.

최용석 한화투자증권 IB본부 전무는 "앞으로 유망한 친환경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투자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진행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꽃으로 봉사하는 날 '블루밍데이(Blooming Day)'를 실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블루밍 데이'는 임직원이 전문 플로리스트에게 교육받고 플라워 박스를 만든 후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간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라폴(라이프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라폴 프로그램' 사회공헌은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이 기부 물품을 직접 제작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자율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사회공헌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고객 모두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2년 만에 정상 /사진 뉴스스
▲'황인범 폴타임' 올림피아코스, 아리스 1-0 제압

▲'피겨 장군' 김예림, 동계유니버시아드서 韓 첫 동메달
▲'ATP 투어 2승' 권순우, 세계랭킹 52위로...32계단 상승



▲빙속 김민선,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1000m 금메달 /사진 뉴스스
▲장애인 26%, '주 2회 바깥서 운동'...코로나 전보다 늘어